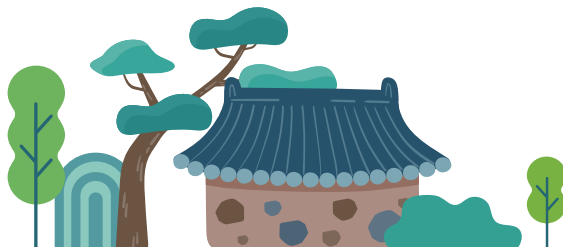


평화와 생명의 중심

나의 고향
하늘 내린
인제





목차

교과서 속 인제

각 학년별 성취기준	1-4
교과 관련 내용	5-8

지도에서 보는 인제

우리나라의 인제	9
강원도의 인제	10
인제의 행정구역	11
인제의 산과 하천	12
인제의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13-14
우리들이 꾸며보는 인제	15-16

왜 하늘내린 인제일까?

1. 인제의 유래	19-20
2. 인제군 상징물	21-22

1부 역사를 담은 인제

1. 인제의 역사	26-28
2. 인제의 마을	30-34
3. 인제의 보물	36-56

2부 문화를 피운 인제

1. 산지촌 인제의 의식주	61-67
2. 인제의 마을신앙	69-72
3. 인제의 민속놀이	74-77
4. 인제의 전통시장	79-80
5. 인제의 농특산물	82-86
6. 인제의 축제	88-98
7. 인제의 문화시설	100-112

3부 자연을 품은 인제

1. 인제의 산	116-120
2. 인제의 하천	122-123
3. 인제 8경	125-137
4. 인제의 관광명소	139-148
5. 인제의 보호구역	150

교과서 속 인제

각 학년별 성취기준

1, 2학년 사회과 성취기준

5. 마을

1) 우리이웃

[2사05-01]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2슬05-02]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 우리동네

[2바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2슬05-02]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3, 4학년 사회과 성취기준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1) 우리 고장의 모습

[4사01-01]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 보고, 서로 비교하여 공통 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한다.

[4사01-02]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백지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또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4사01-03] 고장과 관련된 옛이야기를 통하여 고장의 역사적인 유래와 특징을 설명한다.

[4사01-04]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른다.

3)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4사01-05]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4사02-01]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4사02-03] 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4사02-04] 옛날의 세시 풍속을 알아보고, 오늘날의 변화상을 탐색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2술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4사03-01]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4사03-02]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행정, 교통, 상업, 산업, 관광 등)를 조사하고, 각 중심지의 위치, 기능, 경관의 특성을 탐색한다.

5, 6학년 사회과 성취기준

3.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나라의 등장과 발전>

[6사03-01] 고조선의 등장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김유신과 김춘추, 대조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6사03-03] 고려를 세우고 외침을 막는 데 힘쓴 인물(왕건, 서희, 강감찬 등)의 업적을 통하여 고려의 개창과 외침 극복 과정을 탐색한다.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6사03-05] 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성계,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한다.

4.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6사04-02]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정약용, 흥선 대원군, 김옥균과 전봉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옛 사람들의 노력을 탐색한다.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6사04-03]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명성황후, 안중근, 신돌석 등)의 활동에 대해 조사한다.

[6사04-04]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호 등)의 활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6사04-0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

[6사04-06]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그 피해상과 영향을 탐구한다.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6사08-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6사08-04]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교과 관련내용

학년	교과	단원명	차시	수업활동	관련 내용
1	통합교과 (가을)	내 이웃 이야기	16-17	- 옛날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했던 장소 알아보기	1부-2. 인제의 마을
			7-8	- 다양한 모양의 집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살펴보기	2부 의식주
2	통합교과 (겨울)	여기는 우리나라	15	-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 집의 특징 알아보기	2부-1. 의식주
			9-10	- 우리 가족이 함께 살고 싶은 집 만들어보기	3부 자연
			5-7	- 동네 탐험 계획 세우기 및 탐험하기	지도에서 보는 인제
			14-16	- 일과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 생각하기	2부 전체
통합교과 (여름)	이런 집 저런 집	5-7	- 동네 탐험 계획 세우기 및 탐험하기	2부 전체	
		17	-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 찾기	2부 전체	
통합교과 (가을)	동네 한 바퀴	34-34	- 우리 동네 소식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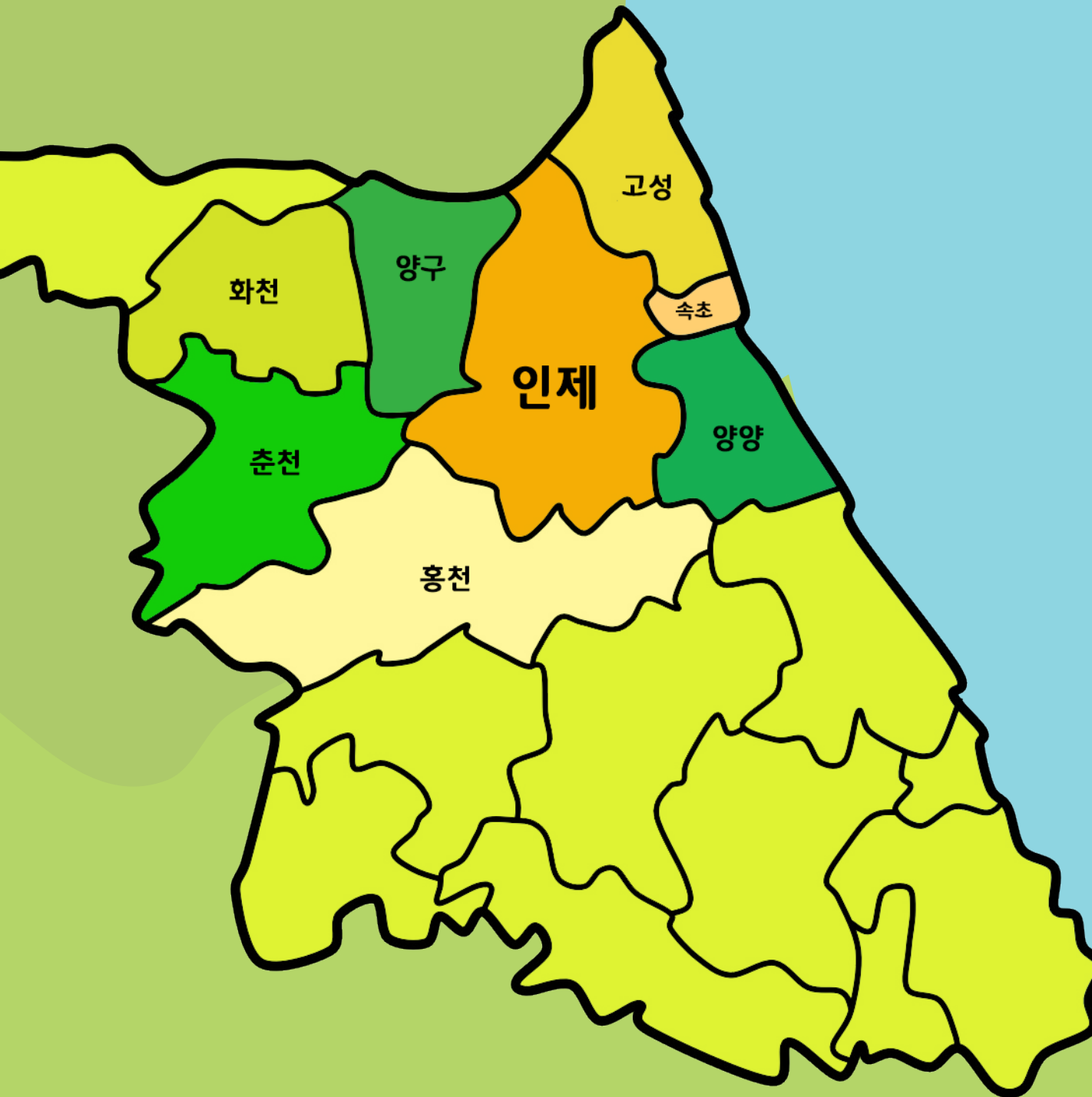
학년	교과	단원명	차시	수업활동	관련 내용
3-1	사회	1. 우리 고장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	2-7	-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이야기 해 보기 -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이 이야기해보기	지도에서 보는 인제
3-1	사회	1. 우리 고장의 모습 [하늘에서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	11-13	-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 에 나타내기 -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 소 소개하기	2부-7. 문화시설 3부 자연
3-1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2-7	- 옛이야기에 담겨 있는 고장의 모 습 알아보기 -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조사하기	1부-2. 지명유래
3-1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8-13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해 보기	1부-3. 보물
3-2	사회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3	- 땅의 생김새에 따른 우리 고장 사 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2부-1. 의식주 3.민속놀이
3-2	사회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 의 모습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	9-11	- 우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알아보 기 - 우리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알아보 기 - 우리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알아 보기	2부-1. 의식주

학년	교과	단원명	차시	수업활동	관련 내용
4-1	사회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도로 본 우리 지역]	3	- 우리 지역을 나타낸 지도 살펴보기	지도에서 보는 인제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 지역의 중심지]	11	-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 지역의 특징 탐색하기	2부-7. 인제의 문화시설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2-7	-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 방법 알아보기 -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 세워보기 -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해보기 -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소개 자료 만들어 보기 -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알아보기	1부-3. 인제의 보물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8-13	-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 세워보기 -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해보기 -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자료 만 들어보기 - 우리 지역의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해 보기	인제의 인물 이야기 (간지)
		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4-7	- 공공 기관의 종류와 역할 알아보기 -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견학해보기	2부-7. 인제의 문화시설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촌락과 도시의 특징]	2-3,6	- 촌락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 촌락의 모습 조사하기 -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2부-1. 인제의 의식주
		1.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	11-13	- 촌락과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는지 알아보기 - 촌락과 도시가 교류하는 모습 조사하기	2부-4. 인제의 전통시장 2부-6. 인제의 축제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교류하며 발전하는 우리지역]	11-13	- 우리 지역의 다양한 경제적 교류 알아보기 - 다양한 지역의 대표상품 알아보기	2부-5. 인제의 농특산물

학년	교과	단원명	차시	수업활동	관련 내용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3-5	-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 알아보기 - 신라의 통일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 알아보기	1부. 1.고대의 인제
			9	-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알아보기	1부. 고려시대의 인제, 마의태자
			16-17	- 조선의 건국 과정 알아보기	1부. 1. 조선시대의 인제
			11	- 을사늑약의 과정에서 항일 의병의 노력 알아보기	의병장 이강년
6-2	사회	1.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14	- 3.1운동 알아보기	인제의 인물이 야기1 한용운 백담사, 만해축전
			18	- 한반도의 분단 과정 알아보기	38교 표석
			20	- 6.25 전쟁의 전개와 그 결과 알아보기	DMZ, DMZ 이야기, 평화누리길, 평화생명동산
			6	- 남북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 조사하기	평화생명동산, 평화누리길
			7	- 비무장 지대(DMZ)	평화누리길

지도에서 보는
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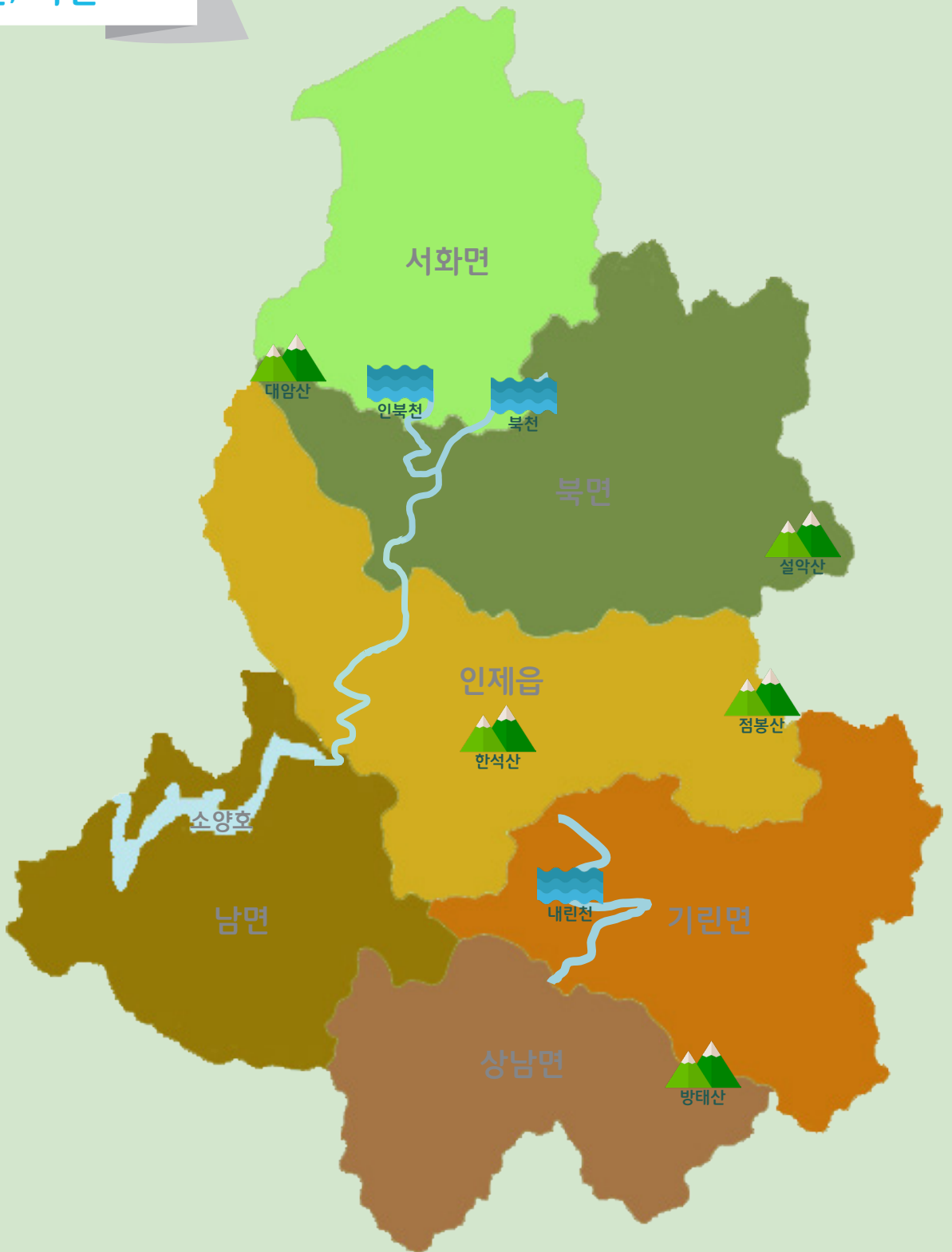
인제

행정구역



인제

산, 하천



인 제

공공기관



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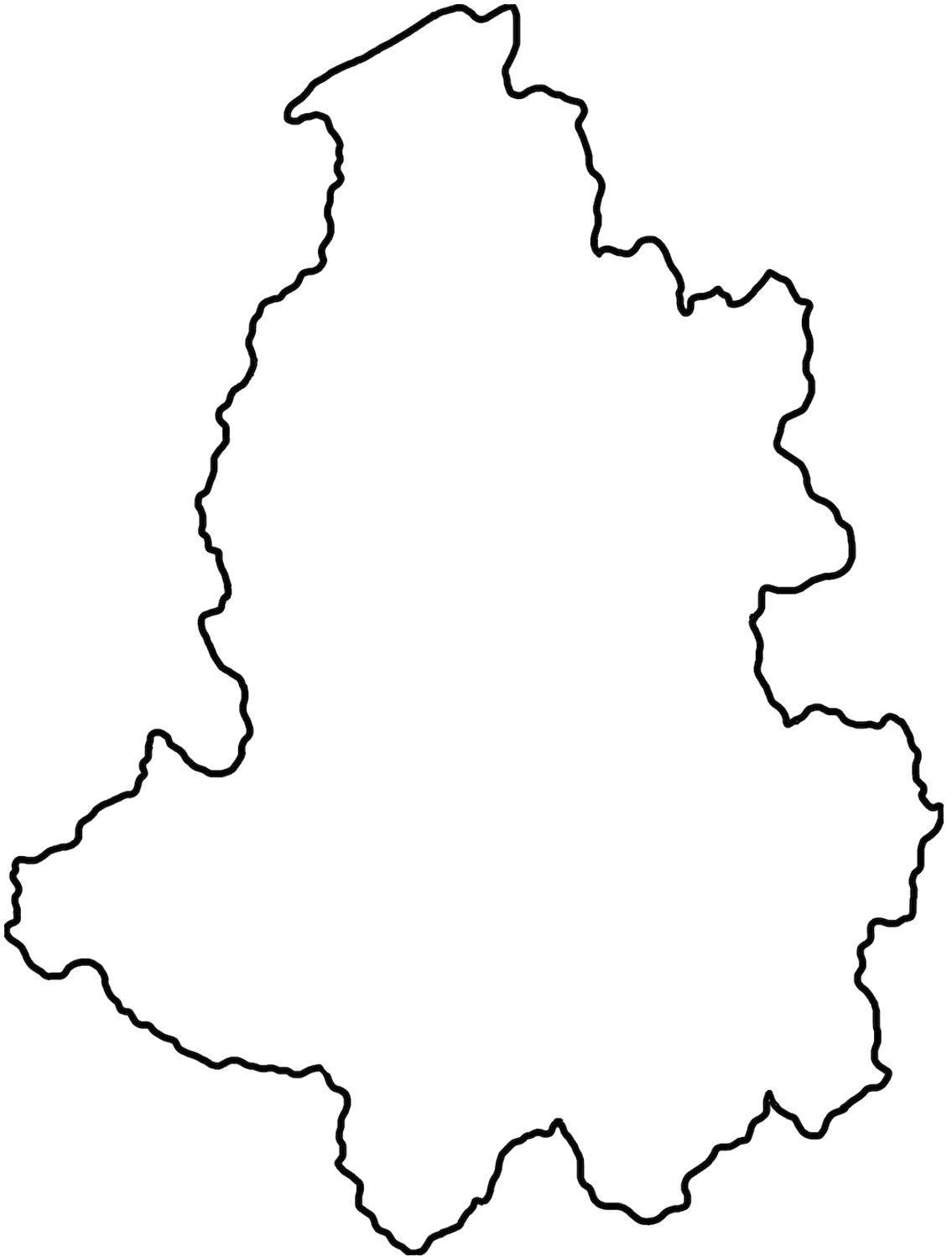
문화시설



인 제

우리가 꾸미는 인제





왜 하늘 내린
인제일까?





위치 : 강원도 중동부에 있는 군

면적(km²) : 1646.33 (강원도 면적의 9.9%, 전국 면적의 1.7%에 해당)

행정구분 : 1읍(인제읍) 5면 (북면,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행정관청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구 : 33,000(2019년 10월)

홈페이지 : www.inje.go.kr

1. 인제의 유래

인제의 지명은 예전부터 저족현→ 오사회→ 희제현→ 인제현→ 인제군으로 이름이 바뀌어 왔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돼지(저족현, 희제현), 까마귀(오사회)와 관련지어 붙여진 이름이고 기린과 관련이 있는 인제로 바뀐 것은 고려시대(서기 940년)부터입니다.

인제라는 지명은 '땅 모양이 기린의 발자국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돼지 보다는 기린이 신령스러운 동물이라 인제로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기린은 우리나라에서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용,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하늘 내린"이라는 인제의 별칭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 내린"은 하늘이 내려준 땅이 아니라 하늘이 인제 땅에 내려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린]

동양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기린은 용의 머리, 사슴의 몸매, 소의 꼬리, 이리의 이마, 발굽을 가지고 있으며 털은 다섯 가지 색이라고 합니다. 기린은 성스럽고 자비로워 동물은 물론 식물조차 먹지 않고 벌레와 풀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제의 지도]

기린의 발굽 모양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麟(기린인), 蹄(발굽 제)를 한자로 씁니다.

교과서 속 인제

우리 고장 인제의 지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찾아 이야기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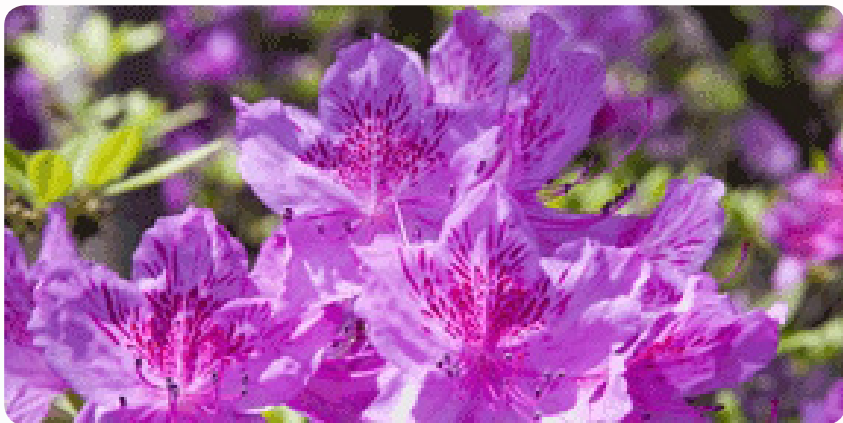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1-1. 지도로 본 우리 지역)

..... 2. 인제군 상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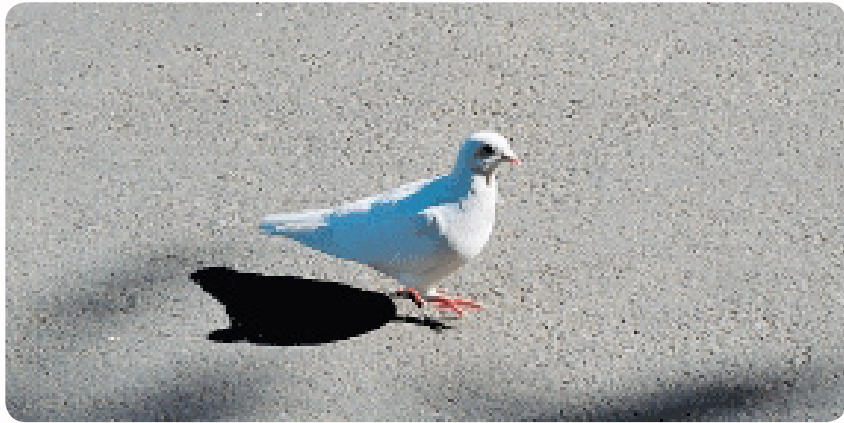
[군목 : 주목]

항상 푸르른 진한 초록색은 맑음과 변함없는 끈기를 뜻합니다. 잎의 모양은 부드럽고 너그러움을, 붉은 열매는 끝없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군화 : 철쭉]

4~6월에 일시에 꽃이 피는 것은 협동과 단결, 활력을 상징합니다. 분홍색의 꽃잎은 군민의 우아함과 따뜻한 인정, 순박성을 의미합니다.



[군조 : 백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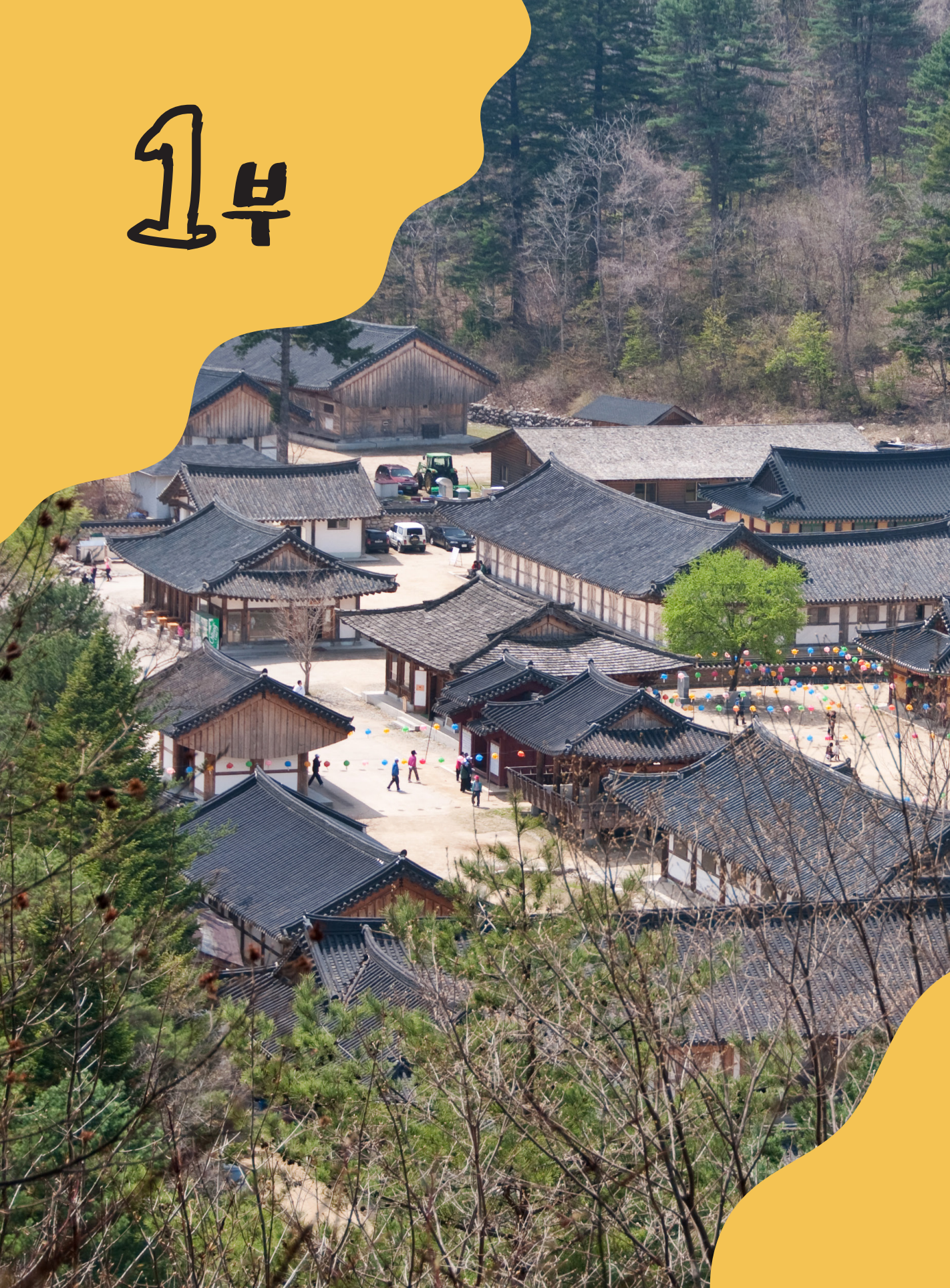
떼를 지어 살아가는 특성은 군민의 협동과 단결을 뜻하고, 사람과 잘 어울림은 따뜻한 인정과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군 마스코트 : 수달이]

천연기념물 수달은 청정지역인 인제의 지역적 특징을 대표합니다.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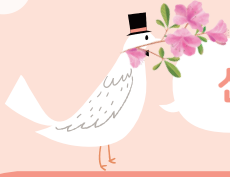




역사적 답은 이제







선사 시대의 인제

인제 지방은 선사 시대부터 인류가 터를 잡고 생활해 왔습니다. 부평리, 남북리, 월학리의 유물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리 유적 집자리 출토모습]



[남북리 유적 전경]



고대의 인제

인제 지역은 3세기 후반 백제의 영토에 속하였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551년에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면서 인제는 '인제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속 인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과정, 신라의 통일 과정 알아보기

(초등사회 5학년 2학기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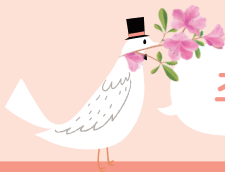


고려 시대의 인제

고려가 건국되면서 전국을 10개의 도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현재의 지명인 인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 속 인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알아보기
(초등사회 5학년 2학기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조선 시대의 인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인제는 군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현내면, 동면, 남면, 북면, 서화면 5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내면에 기린면이 편입되면서 군내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현대의 인제

1916년, 군내면을 인제면으로 개칭하여 인제면, 남면, 북면, 서화면, 기린면 5개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미래의인제

인제군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생태탐방지인 설악산을 중심으로 생태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평화생명 특구를 조성해 평화 중심지 '인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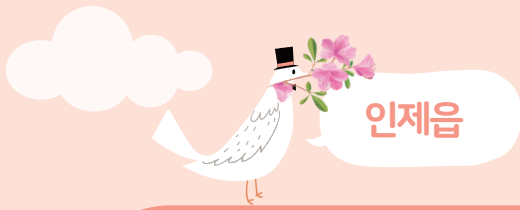
[DMZ평화생명동산]

교과서 속 인제

남북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 조사하기, 통일 한국의 모습 그려보기

(초등사회 6학년 2학기 1.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인제읍

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의 주요 건물이나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가아리

옛날 이름은 개면이·가면이·가아면촌으로 불렸습니다. 개면이·가면이란 이름의 유래는 땅의 모양이 마치 개미를 닮았다고 해서 '개아미리(개미의 방언 형태)'라고 불렸습니다.

2) 귀둔리

'귀둔'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춘천 기린현에 속한 땅이었을 당시, 한 모퉁이에 귀[耳] 같이 붙어있는 땅이라고 해서 귀둔·이둔이라고 불렀습니다.

3) 남북리

원래 동면지역인데, 남리와 북리로 구분됐던 이 지역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합쳐 남북리(南北里)라고 지명했습니다.

4) 합강리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쳐지는 곳이므로 합강(合江)이라고 불리는 마을입니다.



기린면

강원도 인제군의 남동쪽에 있는 면입니다. 지명은 이곳의 군을 기린에 비유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1) 방동리

옛날 기린면의 지역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방동, 동리를 합쳐 방동리(芳東里)라고 지명했습니다.

2) 진동리

옛날 기린면에 있던 지역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전리, 치전리, 문현리를 합쳐 옛 기린현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진동리(鎭東里)라고 지명했습니다.

3) 현리

원래 기린면 지역으로 현동이라고 불렸었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북리와 하남리의 일부를 합쳐 현리(縣里)로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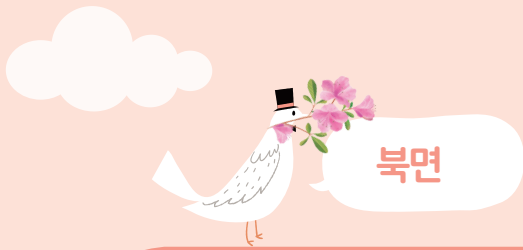
강원도 인제군의 남서쪽에 있는 면입니다. 지명은 군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1) 신남리

원래 남면 신평리 지역이었는데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피난민이 늘어나면서 신평리 북쪽 일부를 떼어 남면의 중심지가 된다는 뜻으로 신남리(新南里)라고 불렸습니다.

2) 어론리

원래 남면의 지역으로서 어론이라고 불렸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탄리와 합쳐져 어론리(於論里)라고 했습니다. 동리 사람들 중에 말다툼이 많아서 어론(於論)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중북부에 있는 면입니다. 면의 절반 이상이 설악산 국립공원의 설악산 안쪽에 있습니다. 지명은 군의 북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북면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1) 용대리

옛날 용대리는 용바위 아래가 되어 '용의 터' 또는 용대동이라고 불렸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교리·창암·가역리를 합쳐 용대리(龍垓里)라고 지명했습니다.

2) 원통리

조선 시대에 원통역이 있었으므로 원통이라고 불렸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때에 어두리와 하동 일부를 합쳐 원통리(元通里)라고 지명했습니다.

3) 월학리

행정구역 개편 때에 송학동과 월학동의 일부를 합쳐 월학리(月鶴里)라고 지명했습니다.

4) 한계리

한계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한계동이라고 불렸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때에 구원동, 관벌, 재내, 쇠리, 자양밭을 합쳐 한계리(寒溪里)라고 지명했습니다.



상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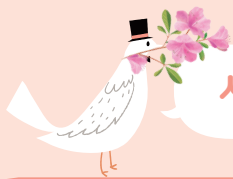
강원도 인제군의 남쪽에 위치한 면입니다. 지명은 옛 기린현의 남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1) 상남리

옛 기린현의 남쪽 중 위에 있어서 상남이라고 불렸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엄수동, 방아다리, 아홉사리, 자포대, 봉남대를 합쳐 상남리(上南里)라고 지명했습니다.

2) 하남리

옛날 기린현에서 남쪽 아래가 되므로 하남이라고 불렸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조전, 방평동, 다릿골, 매화리를 합쳐 하남리(下南里)라고 지명했습니다.



서화면

강원도 인제군의 북쪽에 위치한 면입니다. 지명은 풍수해(풍해·수해·한해)의 삼재가 없어 해마다 풍년을 이루므로 서화(瑞和)라고 지어졌습니다.

1) 서화리

옛날 서화면의 지역으로 서화현에 있기 때문에 서화(瑞和)라고 불렸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곡리를 합쳐 서화리(瑞和里)라고 지명했습니다.

2) 천도리

원래 서화면의 지역으로 '천도' 또는 '천도촌'이라고 불렀는데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수제'를 합쳐 '천도리(天桃里)'라고 지명했습니다.

인제의 마을 이야기

천도리

옛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복숭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 생각해서 복숭아가 떨어진 자리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산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모두 모여 집을 짓기 시작했고, 몇 년 뒤 이곳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하늘로부터 복숭아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천도리(天桃里)라 불렀습니다.



[김민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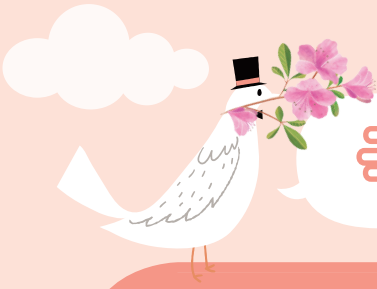
[김준영 그림]

교과서 속 인제

옛이야기에 담겨 있는 고장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1학기 2-1.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국가지정문화재

1) 보물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국가보물 제 1182호 / 복면 용대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유물]

영조 1748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극락세계의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부처님입니다.

얼굴은 네모형태로 큰 이마와 코, 가늘게 뜬 눈과 작은 입이 1700년대 불상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깨와 가슴을 넓게 표현하고 양쪽 다리는 결가부좌를 풍성하게 조각하여 부처의 위엄을 표현했습니다.

불상 내부에서는 수행 과정에서 쓰는 발원문을 포함해 저고리와 유리, 수정과 같은 보석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극락세계 -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괴로움이 없으며 자유로운 세상

중생 - 불교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말

자비 - 불교에서 모든 생명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통을 없애주는 일

위엄 - 존경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기운 및 태도

한계사지 남 삼층석탑

국가 보물 제 1275호 / 북면 한계리



[한계사지 남 삼층석탑]

통일 신라 시대 석탑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9세기 중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을 2층으로 두고, 그 위로 3층의 탑신을 놓았습니다.



[한계사지 남 삼층석탑]

한계사지 북 삼층석탑

국가 보물 제 1276호 / 북면 한계리



[한계사지 북 삼층석탑]

남 삼층석탑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 삼층석탑은 한계사지 금당터에 있고 북 삼층석탑은 절 밖 산기슭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계사지 북 삼층석탑]

봉정암 오층석탑

국가 보물 제 1832호 / 북면 용대리



[봉정암 오층석탑]

설악산 정상에 위치한 봉정암 오층석탑은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자연 암석을 기반으로 삼은 석탑은 균형미가 아름답습니다.

교과서 속 인제

우리 지역의 국가지정 보물을 답사해보고,
문화유산 소개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2-1.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탑의 세부명칭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



● **보개** : 소중한 보륜을 덮고 있는 보개는 탑의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 **보륜** : 상륜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원판을 쌓아 올린 모양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경전판을 쌓아 올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을 의미합니다.

● **양화** : 보륜을 밑에서 포근히 감싸 안는 모양으로, 연꽃이 하늘을 향해 활짝 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 **옥개석** : 탑신석 위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이 옥개석의 개수로 탑의 층수를 알 수 있습니다.

● **탑신석** : 탑의 몸통 부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 **우주, 탕주** : 탑의 네 귀퉁이에 있는 기둥을 우주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기둥을 탕주라고 합니다. 탑에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며 탑의 제작 시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탕주가 2개 이상일 경우는 통일 신라 시대와 그 이전의 탑으로 추정하고, 1개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탑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 **면석** : 기단부의 중심 돌로 이 돌에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2) 사적

한계산성 (천연의 절벽)

사적 제 553호 / 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계산성 하성 남문지 일대 모습]

고려 고종 46년(1529년), 몽고군이 한계산성을 공격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퇴각하던 몽고군을 안흥민 장군이 야별초군을 이끌고 물리칩니다. 한계산성은 이 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사 2019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설로는 신라 경순왕 때 축조되었다고 하며,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신라부흥운동을 할 때 성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한계산성의 성벽은 천연의 절벽을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계산성 하성 남문지 일대 모습]

대승폭포

명승 제 97호 / 북면 한계리



[대승폭포 암각문 '구천은하']

설악산 대승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불립니다. 특히 대승폭포는 높이와 폭에서 가장 큰 폭포 중 하나입니다. 해발고도 800미터 지점에서 80여 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대승폭포의 물기둥은 장엄한 경관을 이룹니다.

폭포 맞은편 반석 위에 '구천은하(九天銀河)'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구천은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하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시대 명필 양사언의 글씨라고 전해지는 설과 헌종 3년(1837) 강원감사 홍치규가 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승폭포]

인제의 전설 이야기 하나

대승폭포



옛날 대승이라고 불리는 총각이 북면 한계리에 살았습니다. 대승은 석이(바위에서 피는 버섯)를 따서 그것으로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을 동아줄을 매고 내려가서 석이를 따왔습니다. 잔뜩 석이를 따놓은 참인데 절벽 위에서 “대승아! 대승아!”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승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에 소스라쳐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온데간데없고 동아줄에는 커다란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 있었습니다. 동아줄은 막 지네에 뜯겨 끊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대승은 동아줄을 급히 타고 오르느라 온몸이 땀으로 흥뻑 젖었지만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후세에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험을 가르쳐준 대승의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친다 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속 인제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를 조사해 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1학기 2-1.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십이선녀탕

명승 제 98호 / 북면 용대리



[십이선녀탕의 복숭아탕]

십이선녀탕은 내설악에 위치해 있으며 탕수동계곡이라고도 불립니다.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하여 선녀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맑은 탕이 12개라 해서 12선녀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8개 뿐입니다. 웅봉폭포를 지나면 첫 탕인 독탕이 나오고 북탕·무지개탕·복숭아탕·용탕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폭포 아래 복숭아 모양의 깊은 구멍이 있는 7번째 복숭아탕이 가장 아름답다고 전해집니다.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명승 제 99호 / 북면 용대리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대]



[수렴동·구곡담 계곡의 쌍폭]

수렴동계곡과 구곡담계곡은 내설악의 대표적 계곡으로서 전체적으로 아주 완만한 계곡으로 자연스러운 맛과 그윽한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렴동은 경치가 금강산에 있는 수렴동계곡의 경치와 견줄만하다는 데에서 생겨난 이름이고 구곡담은 굽이쳐 흐르는 계곡에 아홉 개의 담(연못)이 있다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설악산 용아장성

명승 제 102호 / 북면 용대리



설악산 내설악지구에 있는 **능선**으로 공룡능선과 함께 설악산의 대표적인 **암봉** 능선입니다. 설악산 용아장성은 수렴동대피소에서 봉정암에 이르는 약 5km 구간에 걸쳐 날카로운 암봉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20여 개의 크고 작은 암석 봉우리들이 용의 송곳니처럼 솟아 성곽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는 데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용아장성]

능선 -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의 산의 등줄기

암봉 - 바위로 이루어진 산

설악산 공룡능선

명승 제 103호 / 북면 용대리



공룡능선은 백두대간에 자리한 설악산 정상
의 북쪽에 있는 마등령에서 시작하여 남쪽 신선
암까지 이르는 능선을 가리킵니다. 내설악과 외
설악을 가르는 설악산의 중심 능선이기도 합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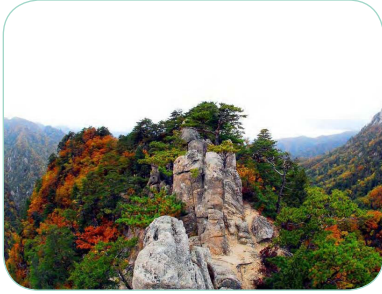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솨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통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
름입니다.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일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줍니
다.



[공룡능선]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명승 제 104호 / 북면 용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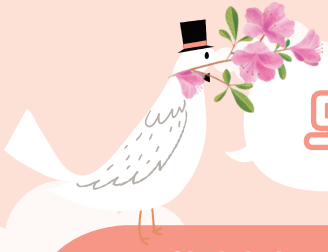
[만경대의 가을]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는 오세암 바로 앞의 해발고도 922.2미터의 봉우리입니다. 내설악은 설악산의 안쪽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만경대는 만 가지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관 조망대에 올라가면 내설악에 있는 자연경관을 관망하기 쉽다는 데에서 내설악만경대라는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내설악 만경대]

조망대 -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대



도 지정문화재

1) 기념물

한계사지

도지정문화재 강원도기념물 제 50호 / 북면 한계리



[한계사지 내 불상좌대]

통일 신라 시대 때 세워 조선 시대 때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계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계사는 자주 불이 나서 여러 번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절 이름을 운흥사, 심원사, 선구사, 영취사 등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 후 1457년 지금의 백담사 자리로 옮겨 백담사라고 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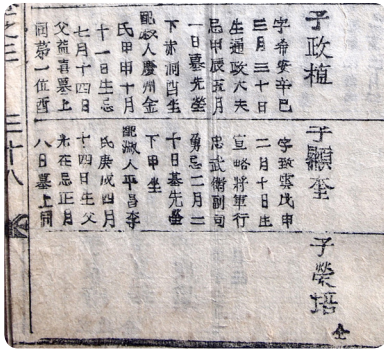
통일 신라 시대의 유물인 석탑, 석등, 석불부터 조선 시대의 명문기와까지 발견되고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계사지]

인제 동경대전 간행터

도지정문화재 강원도기념물 제89호 / 남면 갑둔리



[공방에서 제작한 고문서]

동학이 정부의 탄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 2대 교주 최시형과 주요 인물들이 피신하여 동학을 재기시킨 곳입니다.

인제 갑둔리는 최초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지역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행시 공방터]

동경대전 - 동학을 보다 체계화된 종교로 만들기 위해 동학의 주요 가르침을 정리한 책

2) 문화재자료

인제상동리삼층석탑및석불좌상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34호 / 인제읍 상동리



[상동리 삼층석탑]

상동리삼층석탑은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고 원래의 모습은 3층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2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석불좌상 또한 몸체만이 본래의 모습이고 목과 머리는 시멘트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연꽃 받침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어깨 곡선이 부드러우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석불좌상]



[상동리 삼층석탑 및 석불좌상]

인제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103호 / 인제읍 상동리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향교는 조선 시대에 각 지방에 설치된 국립 교육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인제 향교는 조선 초기에 만든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는 제사의 기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지역 학생들에게 한문 강습과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봄과 가을에는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성현 -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유학 - 중국의 공자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학문

인제갑둔리오층석탑및주변탑재일식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117호 / 남면, 상남면 일대



[갑둔리오층석탑 및 주변탑재]

1) 갑둔리 5층 석탑

갑둔리 5층 석탑은 2층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습니다. 탑신의 1·2·3층 몸돌과 5층 지붕돌은 탑을 복원할 때 새로 만들어 끼워 넣었습니다. 위층 기단에 고려 정종 2년이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 시대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둔리오층석탑]



[갑둔리삼층석탑]

2) 갑둔리 3층 석탑

갑둔리 3층 석탑은 2층 기단에 2층만 남아있는 석탑으로 상대 갑석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탑신부는 2층 지붕돌과 3층 몸돌이 없어진 상태로 지붕돌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 시대에 세운 탑으로 보입니다.



[갑둔리삼층석탑의 지붕돌]



[갑둔리오층석탑 및 주변탑재]

3) 상남리 석탑재

상남리의 민가 주변에 있는 석탑재로 아래층 기단 조각, 위층 기단 가운데 돌, 탑신의 1층 몸돌, 몸돌 조각, 지붕돌 조각 등 다섯 부분입니다.

탑재들은 기단부와 지붕돌 양식으로 볼 때 통일신라 후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둔리오층석탑]

교과서 속 인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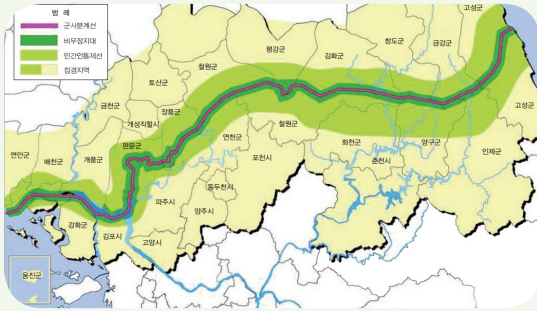
(초등사회 3학년 1학기 2-2.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답사해보고,
문화유산 소개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2-1.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DMZ 이야기

DMZ (비무장지대)



[DMZ 일대 지도]

DMZ는 전쟁이나 분쟁 후 서로의 약속을 통해 군사 활동이 금지된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DMZ는 6·25전쟁(한국전쟁) 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만큼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멸종 위기 동식물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6·25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DMZ는 서글픈 평화의 공간으로도 불립니다.

리빙스턴교 / 인제읍 합강리

리빙스턴교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토마스 리빙스턴 소위의 이름을 따서 '리빙스턴교'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1951년 6월 인제지구 전투에 참가한 리빙스턴 소위의 소대가 인제 합강정 부근에 숨어있던 적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소대가 후퇴를 하기 위해 인북천 강을 건널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넘쳤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원이 거센 물살과 적의 사격에 희생되었고 리빙스턴 소위도 중상으로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이 강에 다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부하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슬퍼하고 고국에 있는 부인에게 "이 곳에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 들은 부인은 1957년 12월 붉은 페인트를 칠한 일명 '빨간 다리'라 불리는 리빙스턴교를 만들었습니다.



[리빙스턴교]

38교 표석 / 남면 신남리

38선에 위치한 38교는 군사 분계선을 표시한 다리입니다. 6·25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북의 소련군과 남의 미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많았습니다. 소양강은 아군과 적군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1953년, 미군들이 동원한 중장비로 다리를 건설하게 되자 근처 마을 어르신들은 이 다리를 '도깨비 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38교 표석]



[38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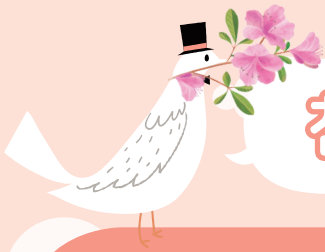
본 내용은 동영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유튜브 <DMZ 이야기> 편 시청하기: [youtube.com/channel/UCwVSi776DyIPevFZBsNA0Fg](https://www.youtube.com/channel/UCwVSi776DyIPevFZBsNA0Fg)

교과서 속 인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 알아보기

(초등사회 5학년 2학기 2.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천연기념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천연 기념물 제 171호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북면 한계리~용대리 일대



[설악산 일대]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1013종의 다양한 식물과 1562종의 희귀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사향노루·산양·수달·하늘다람쥐·열목어·어름치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크낙새·사향노루·산양·까막딱따구리 등은 귀중한 **학술**자원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학술 - 학문과 기술을 이르는 말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천연 기념물 제 246호 / 서화면, 북면 일부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일대]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은 대우산, 도솔산, 대암산, 대암산 정상 부근의 큰 용늪과 작은 용늪을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용늪은 대암산 정상 부근의 습지로 작은 용늪은 그 모습이 없어져 숲으로 변했지만, 큰 용늪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층습원**입니다.



[용늪]

특이한 지형과 기후적 특성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자라나는데 특히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검독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고층습원 - 고산 지대의 습기가 많은 지역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천연 기념물 제 247호 / 서화면 일부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일대]



[향로봉 일대]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은 칠정봉으로부터 향로봉·건봉산을 지나 비무장 지대까지를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중부 **온대림**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숲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칠성장어, 금강모치, 버들치, 가는돌고기, 수달, 사향노루, 산양, 곰, 하늘다람쥐, 하늘말나리, 금강 초롱 등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온대림 - 따뜻한 지방에 발달하는 삼림.

미산리 개인약수

천연 기념물 제 531호 / 상남면 미산리



[미산리 개인약수]

미산리 개인약수는 개인산 산사면에 있는 약수라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약수는 어진 마음을 열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는 데에서 개인(開仁)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수물은 산 비탈길에 흡수된 빗물이 바위를 통과하면서 철분 등의 무기물을 녹인 후 계곡 옆 틈으로 솟아 납니다. 특유의 비린 맛과 톡 쏘는 맛으로 **수질**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891년에 함경북도 출신의 사냥꾼 지덕삼이 백두대간에서 사냥을 하는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고종황제에게 이 물을 바쳐 말한 필과 백미 두 가마, 광목 백 필을 하사받았을 정도로 차고 순수한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질 - 물의 성분이나 온도, 빛깔, 맑고 흐림에 따라 결정되는 물의 성질

2부





문화생활 피운 이제





1

산지촌 인제의
의식주

인제군은 산과 강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농경지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인제의 전체 면적의 87%가 산지촌이며, 농경지는 4.6%에 불과합니다.

이런 환경 탓에 인제군민의 생활은 대부분 산에 의지해서 이루어졌으며, 인구분포를 보면 산과 강을 잘 활용하여 생활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산과 강이라는 천혜의 환경은 인제군민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와 생활문화를 이룩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뗏목과 숲, 목기와 같은 목재산업과 산지촌으로 중심으로 한 농업이 크게 발달 했습니다.

산지촌 - 산지에 이루어진 마을



본 내용은 동영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유튜브 <인제산촌민속박물관> 편 시청하기: youtube.com/channel/UCwVSi776DyIPevFZBsNA0Fg

교과서 속 인제

산지촌인 우리 고장 인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농촌 어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2학기 1-1. 촌락과 도시의 특징)

의생활

전통적인 일상복으로 남성은 바지와 저고리, 여성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버선을 신었습니다. 계절별로는 모시나 삼베가 쓰였고, 겨울에는 추운 지방이라 솜을 넣어 누벼 입거나 짐승의 털가죽으로 목도리나 옷옷으로 해서 입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머리에 밀짚모자나 보릿짚, 맥고모자를 썼고 겨울에는 방한복으로 마고자를 입고 버선에 대님을 댔습니다.



[옛 인제군민들의 모습]

모시 -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이는 모시 풀 껍질의 섬유로 짠 천

삼베 - 삼 껍질의 섬유로 짠 천

맥고모자 - 밀짚이나 보리 짚을 엮어 만든 여름용 모자

마고자 - 한복 저고리 위에 입는 옷옷

대님 - 한복 바지를 입은 뒤, 발목 부분을 접어서 졸라매는 끈

식생활

인제지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어느 지방보다도 다양한 토속 식단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논이 적고 화전밭이 많았기 때문에 잡곡을 주식으로 먹었고 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대신 산이 많아 산나물류와 버섯류, 뿌리채소류를 반찬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봄 계절밥상]



[여름 계절밥상]



[가을 계절밥상]



[겨울 계절밥상]

주생활

산지촌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주민들은 산계곡이나 화전밭 인근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들은 햇빛과 비, 눈을 피해 몸을 숨기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1) 귀틀집

화전민이나 숲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산계곡이나 화전밭 주변에 귀틀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귀틀집이란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쌓아올려 짓는 집입니다. 지금도 내설악 소간령 마을에는 몇 채의 귀틀집이 옛 화전민들이 쓰던 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설악 소간령 마장터의 귀틀집들]



[귀틀의 상세모습]

2) 너와집

기가 어려웠던 예전에는 지붕을 만들기 위한 벗짚과 기와가 귀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산에서 통나무를 베어다 기와처럼 잘라서 지붕을 올렸습니다. 이를 너와집이라고 합니다. 인제산 촌민속박물관 뒤쪽으로 옛날 김부리에 있던 김부대왕각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너와집입니다.



[산촌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옛 대왕당 너와집]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초가집]

3) 초가집

초가집은 인제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가장 많은 형태의 집입니다. 초가집은 주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진흙을 발라 벽을 만든 뒤, 벗짚으로 지붕을 얹어 지은 집을 말합니다.

교과서 속 인제

우리 고장의 의식주를 조사해 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2학기 1-2.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

생활 도구

1) 인제목기

목기는 나무로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인제목기는 인제에서 **벌목**한 질 좋은 나무들로 만들어집니다. 인제목기는 실용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생활용기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의 생활용기가 나오면서 현재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인제 목기]



[목수들의 연장]

벌목 - 나무를 베고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제재소로 나르는 과정

2) 인제 뗏목

인제의 나무들은 궁궐 보수에 쓰일 정도로 질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옮기기 위해 인제 뗏목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제 뗏목은 교통수단이 아닌 목재 운반의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서울까지는 10~15일이 걸리는데 한 번 다녀오면 쌀 1~3가마니를 받았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1년 농사를 지어도 쌀 한두 가마 얻기가 어려웠는데, 떼돈 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옛 전통 뗏목을 재현한 모습]

3) 숯

인제 남면에는 숯둔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전 이곳에서는 숯가마를 만들고 마을 공동으로 숯을 구워 다른 물건과 교환하거나 팔았습니다. 숯은 밥을 짓거나 난방 등 일상생활에서 쓰임이 많았을 뿐 아니라 주변을 깨끗이 한다는 민속신앙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촌 사람들은 숯으로 이용할 나무가 많은 곳이면 그곳에 숯가마를 만들어 숯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인제의 숯공장]



[인제의 숯가마 유적]

민속신앙 -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신앙

4) 화전 - 겨리쟁기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산에 불을 질러 밭을 만드는 화전이 많았습니다. 쟁기는 겨울 내내 언 땅을 가는 농기구입니다. 겨리 쟁기는 소 두 마리가 끄는 큰 쟁기를 말하고 호리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작은 쟁기를 말합니다. 때론 소가 없는 농가에서는 사람이 직접 메어 끄는 인걸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겨리쟁기]

인걸이 - 쟁기를 사람이 소처럼 끄는 일

교과서 속 인제

땅의 생김새에 따른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2학기 1-1.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산지촌인 우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고, 도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2학기 1-1. 촌락과 도시의 특징)



공동체의 행복과 풍요를 소망하기 위해 예로부터 마을에 내려오는 집단적 신앙입니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마을공동행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을신앙을 보면 그 마을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 - 넉넉하다

덧골 서낭제와 산신제

인제읍 가야1리는 서낭당과 산신당이 따로 있습니다. 서낭당에는 서낭신과 용왕신을 모시고 산신당에는 산신을 모시는데 이곳의 신들은 모두 여신이라고 합니다.

제사는 일 년에 한번, 음력 8월 14일 아침 6시에 지냅니다. 제사를 명절 앞으로 잡은 것은 이 유가 있습니다. 제사 지낸 후, 고기를 가져가 명절에 쓰고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산신제의 모습]

창말의 박대감 서낭제와 거릿고사



[기린면의 박대감사당]

<창말의 박대감>

현1리의 면사무소 뒷산에 오르면 박대감을 기리는 기념비와 묘가 세워져 있습니다. 박대감은 고려 말엽의 인물로서 높은 관직을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대감님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박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박대감을 이곳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서낭제를 지냈습니다. 주민들이 병나지 않게 곡식이 잘 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창말 - 창말은 글자 그대로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고려 시대 이곳에 큰 창고를 지어놓고 군인들이 먹을 쌀을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거릿고사>

가을에는 '도깨비고사'라고 불리는 '거릿고사'를 지냅니다. 이는 형체가 없는 도깨비를 먹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을 입구 사거리에 돼지나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내며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끼리의 화합을 다짐하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박대감사당에서 지내는 제사 및 거릿고사]

기린면 무후사제

6·25전쟁 전 기린면과 남면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자식이 없어 자신의 제를 지낼 수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군에 기증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를 지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기린면 무후사제입니다.



[기린면 무후사제]

김부대왕 동제



[김부대왕각]

상남면 김부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입니다.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와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드리는 행사로 천 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절을 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고 합니다.

동제 -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

용늪기우제

용늪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용은 순우리말로 “미르”인데 미르의 어원은 “밀”로서 물의 어원과 같아 물의 옛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은 물의 신으로 비, 구름을 부르는 상상속의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용늪에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부정**한 것을 용늪에 넣어 용신을 화나게 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개를 끌고와 그 피를 용늪에 뿌리고 축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함강정에서 열리는 인제군민 기우제]

부정 - 깨끗하지 못함. 또는 더러운 것

용늪 기우제 이야기

서흥2리 할머니의 말말말

1980년대, 비가 안 오면 용늪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지. 날이 많이 가물면 면장과 이장,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개를 잡아서 지고 올라갔었지. 그리고 용늪에 개를 넣고, 비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포를 놓고 술을 따르고 축을 고했어. 제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늪에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어. 용늪은 신성한 곳인데, 그곳에 부정한 고기인 개를 잡아넣음으로써 비가 오기를 바랐던 거지. 신성한 곳에 개를 넣으면 부정을 씻으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야.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바로 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2,3일 이내는 몇 방울이라도 비가 내렸어.



인제군의 민속놀이는 우리나라 여타 지방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를 거의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특히 **생업** 민속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뗏목, 솟가마, 화전, 선질꾼처럼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생업 -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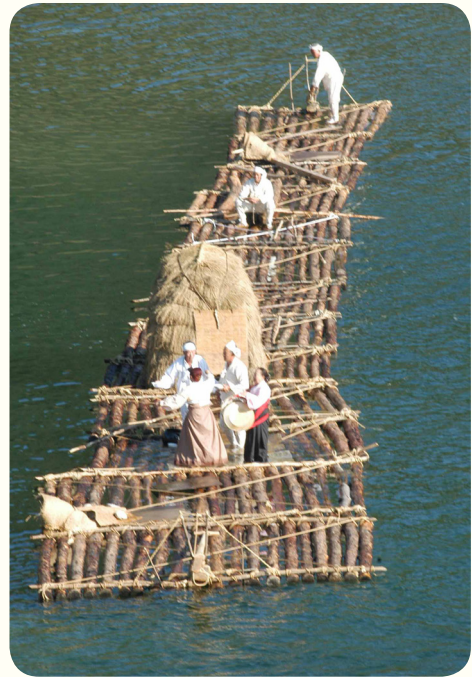
보존 -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

뗏목놀이

인제에서 벌채한 나무는 뗏목으로 만들어져 춘천을 지나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뗏목꾼들은 **강치성**을 드리고 위험과 외로움을 무릅쓰고 2인이 1조가 되어 출발했다고 합니다. 뗏목놀이는 나무를 운반하는 과정의 모습을 재현한 놀이입니다.



[뗏목 운반 재현]



[합강리 뗏목 시연]

강치성 - 뗏목 위에 돛자리를 깔고 재물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

숯둔골 숯굽기

남면의 숯둔골은 숯을 생산하던 곳으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숯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놀이는 숯을 구울 때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숯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흙으로 만든 가마가 단단해야 했기 때문에 가마꾼들은 위에 올라가 숯가마 등을 커다란 나무망치로 두들겼습니다. 이 때, 노랫소리 장단에 맞춰 숯가마를 쳤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숯가마등치기'입니다. 이 노래에는 지금도 인제의 전통 민속놀이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숯둔골 숯굽기 과정

1. 일정하게 자른 나무를 쌓아올려 가마를 만들고 참나무를 세웁니다.
2. 음식을 차려놓고 산신에게 치성을 드립니다.
3. 사방에 술을 붓고 고시레를 합니다.
4. 숯가마에 불을 지르고, 한편에서는 싸리 등으로 숯섬을 만듭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재현한 '숯가마 등치기']

치성 - 신에게 정성을 들여 기도함

고시레 - 고수레의 강원도 사투리로 제사를 지낼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숯섬 - 숯을 담기 위해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

조경동 갈이남박만들기

조경동 갈이남박만들기는 깊은 산중에서 나무를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인 **함지**, **쌀남박**, 접시, 목기류를 만드는 모습을 재현한 놀이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협동정신과 슬기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이남박]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재현한 '갈이남박만들기']

군량동 채독 만들기

인제의 귀둔리는 고려 때부터 군량을 저장하여 온 고장이라 해서 현재도 군량동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쓰리나무로 **채독**을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이 놀이는 입산-채독만들기-채독모으기-한마당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지 - 나무를 네모 모양으로 만든 그릇

쌀남박(이남박) - 안쪽에 여러 줄로 돌려 파서 만든 큰 바가지의 그릇.
쌀을 씻을 때 돌과 모래를 가라앉게 한다.

채독 - 독 모양으로 만들고 안팎으로 종이를 바른 채그릇. 산간 지방에서 마른 곡식을 담을 때 많이 사용한다.

바지게 선질꾼

예전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영동과 영서의 **무역**을 담당한 이들이 선질꾼(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지게(지게)에다 영동에서 나는 생선이 나 소금을 지고 산맥을 넘어와 곡식과 교환하거나 팔았습니다. 다시 영동으로 넘어와 영서의 곡식을 되팔았습니다. 그 곡식을 지고 영동으로 가서 팔았습니다.

그들은 산길이 험하기에 무리를 지어 다녔고, 오가는 길에 고단한 삶을 노래에 실었다고 합니다.

무역 - 지방과 지방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



[바지게]

교과서 속 인제

땅의 생김새에 따른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 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2학기 1-1.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4

인제의
전통시장

인제의 전통시장

인제군에는 인제장, 원통장, 기린장, 서화장, 신남장, 상남장이 있는데 5일마다 장터가 열려서 5일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매월 해당 숫자가 적혀있는 날에 장이 열립니다.

그중 인제장과 원통장이 큰 규모로 펼쳐집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약초, 농사지은 사람들이 팔러 온 농산물, 외부 상인들이 가져온 옷, 수산물, 잡화,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당 숫자가 적혀있는 날에 장이 열립니다

인제장(4,9장) - 4, 9, 14, 19, 24, 29

원통장(2,7장) - 2, 7, 12, 17, 22, 27

기린장(3,8장) - 3, 8, 13, 18, 23, 28

서화장 - 1, 6, 11, 16, 21, 26

신남장 - 3, 8, 13, 18, 23, 28

상남장 - 2, 7, 12, 17, 22, 27



[원통장의 모습]

에누리장터

44번 국도 이용 관광객 대상으로 인제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에누리장터]



본 내용은 동영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유튜브 <인제의 전통시장> 편 시청하기: [youtube.com/channel/UCwVSi776DyIPevFZBsNA0Fg](https://www.youtube.com/channel/UCwVSi776DyIPevFZBsNA0Fg)

교과서 속 인제

전통시장을 통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2학기 1-2.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



황태

용대리의 별칭은 풍대리(風垚里)로 바람이 잘 부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일교차가 큰 용대리의 겨울 동안, 황태는 얼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인제 용대리는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황태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태는 원래 북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용대리에 살며 70년대 부터 시작된 황태가 현재 인제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의 황태덕장]



[황태포]

곰취

인제군은 수많은 산나물이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곰취는 은은하게 풍기는 상큼한 향과 부드럽고 씹싸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인제군에서 재배되는 곰취는 밭에서 모종을 키워 대부분 산에 옮겨 심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발 600m 이상의 자연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밭에서 재배된 일반 곰취보다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인제 곰취는 지리적표시제 제32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곰취]

자생 -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모종 - 옮겨 심으려고 가꾼 어린 식물

지리적표시제 - 오랜 역사와 품질을 자랑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오미자

오미자(五味子)는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껍질에는 신맛, 과육에는 단맛, 씨에는 맵고 쓴맛, 전체에서 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오미자는 고지 부근의 큰 나무의 그늘 밑에서 주로 자라는데 산이 많고 지대가 높은 인제군에서 특히 잘 자랍니다. 지대가 높다는 점과 더불어 일교차가 큰 인제군의 기후로 인해 영양가가 가득 담긴 오미자가 탄생합니다.



[오미자 수확기]



[오미자]

풋고추

인제는 여름철 최대의 풋고추 생산지입니다. 인제군의 풋고추는 일교차가 크고 해발이 높은 고랭지 지형 덕분에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입니다. 청정지역인 인제는 맑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최고의 풋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풋고추]

콩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표시제 제78호 작목으로 등록된 인제 명품 콩은 웰빙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제에서 고랭지 채소의 대체작물로 집중 재배되고 있으며 인제 콩으로 빻은 내린천 원당 두부 또한 그 고소한 풍미로 소비자 일등 음식입니다.



[콩]



[인제 콩으로 만든 두부]

교과서 속 인제

우리지역의 자연환경과 발달한 산업을 참고해 인제의 대표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지를 만들어 소개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2학기 2-2. 교류하며 발전하는 우리 지역)



6

인제의
축제



우리 고향 축제

1 인제빙어축제



[인제빙어축제]



[전국얼음축구]



[빙어등 점등식]

시기 매년 1-2월 사이

장소 남면 부평리 빙어호, 신남리 시내권, 소양호 일원

홈페이지 <http://www.injefestival.co.kr/>

인제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호수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빙어를 소재로 한 축제입니다. 1998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겨울 축제의 시작이자 산촌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인제군만의 고유 축제입니다. 매해 겨울마다 산란을 위해 등지를 찾는 빙어 떼와 얼음을 주제로 한 체험, 겨울 레포트, 산촌 민속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빙판위에서 작은 공 하나로 승부를 가르는 전국 얼음축구는 인제빙어축제의 백미입니다.



우리 고장 축제

2 용대리 황태축제



[용대리 황태축제]



[황태손질]



[전국 황태 요리 경연 대회]

시기 매년 5월

장소 용대 3리 삼거리

홈페이지 <http://황태축제.kr/>

인제 용대리의 황태를 널리 알리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1999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용대리 황태축제는 전국 황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황태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황태 요리 경연 대회'는 매년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고 있어 황태요리 개발과 상품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축제

3 만해축제



[만해축제 행사]

시기 매년 8월

장소 인제읍 하늘내린센터 일원,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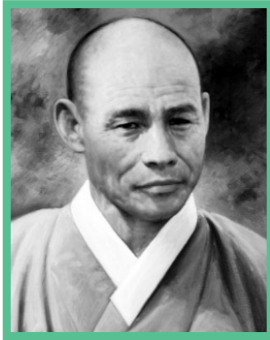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manhae.com/>

승려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억하기 위해 북면 만해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만해축제 기간에 시상하는 만해 대상은 만해축제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기서 만해대상이란 한용운 선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실천·평화·문예 분야에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외로 '만해길(만해로드) 대장정'행사는 한용운 선사의 문학과 독립운동에 관련된 유적지를 2박 3일간 걸어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선사 - 돌아가신 스승을 이르는 말

인제의 인물이야기 ^{하나}



만해 한용운
(1879~1944)



만해 한용운은 어려서부터 한문학을 배우며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 설악산의 오세암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1905년에는 백담사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독립 선언서의 행동 강령인 '공약 3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용운은 늘 일제의 감시를 받았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한국 불교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웠습니다.

만해 한용운이 1926년에 펴낸 시집인 《님의 침묵》은 승려로서의 깨달음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잘 담아냈습니다. 님의 침묵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빚대어 표현한 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즐겨 외웠습니다.

교과서 속 인제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2-2.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3.1운동 알아보기

(초등사회 5학년 2학기 2.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우리 고향 축제

4 합강문화제



[개막식]

[합강문화제 체육대회]

[전통 민속체험 경기]

시기 매년 10월

장소 인제읍 잔디구장 및 주변 일원

매년 가을 지역주민들이 모여 즐기던 향토문화축제가 합강문화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축제명이 바뀐 이유는 인제 사람들에게 합강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합강은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군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합강문화제는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전통 민속체험 경기를 개최하고 지역 전통 민속의 전승을 위해 생업민속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전승 - 문화, 풍속 등을 물려받아 이어나감

생업민속 -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을 전승한 기술, 문화 등을 이르는 말



우리 마을 축제

1 기린면

진동계곡 산나물축제



[함지박비빔밥 만들기]

시기 매년 5월

장소 기린면 진동 1리 녹색농촌체험학교 일원

기린면 진동계곡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진동계곡 산나물축제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진동계곡마을 농촌체험학교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산나물을 주제로 한 함지박비빔밥 만들기와 산나물 떡메치기, 먹거리 장터가 열립니다.



우리 마을 축제

2 남면

소치마을 수리취떡축제



[수리취떡메치기]



[수리취떡]

시기 매년 5월말에서 6월 초 (음력단오)

장소 남면 갑둔리 하늘여울 소치마을 농촌체험학교 일원

소치마을 수리취떡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축제로 소치마을 농촌체험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소치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져 있는 산촌마을로 야생 수리취가 많이 자라는 마을입니다. 야생 수리취는 “떡취”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음력 단오 무렵에 떡을 해서 먹는 풍습을 축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축제

3 상남면 인제 마의태자축제



[마의태자권역]



[합강문화제 체육대회]



[전통 민속체험 경기]

시기 매년 9월 말

장소 용소마을 (마의태자권역마을)

상남면 용소마을(마의태자권역마을)에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신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의태자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마의태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떡매치기' 체험은 평소 마의태자가 즐겨 먹던 음식인 취떡을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로 이 마을에서 '마의태자 축제'를 개최하는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인제의 인물이야기 ⁴⁴

마의태자 (미상)



[남면 어론리 마의태자유지비]

마의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입니다. 경순왕은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 세력에 눌려 더 이상 국가를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려에 복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마의태자는 “나라가 유지되고 망하는 데에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다”며 “힘을 다하지 않고 1000년 사직을 가볍게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경순왕은 무고한 백성을 더 이상 죽일 수 없다 하여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마의태자는 통곡하며 왕을 그만두고 개골산(겨울 금강산의 이름)으로 들어가 초식으로 삶을 이어가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마의태자’라는 명칭은 그가 벼옷을 입고 일생을 보냈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직 -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교과서 속 인제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마의태자’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2-2.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알아보기

(초등사회 5학년 2학기 2.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우리 마을 축제

4 하추리

하추마을 도리깨축제



[하추마을 도리깨축제]



[탈곡체험]

시기 매년 11월

장소 하추자연체험학교 일원(인제읍 하추리)

가을 수확의 기쁨을 놀이문화로 발전시킨 축제로, 마을의 대표 농산물인 잡곡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제사에 이어 주민들이 탈곡 도구를 메고 진행하는 거리 연행, 도리깨, 디딜방아, 절구 등의 탈곡 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마을 주민 40여 명이 함께 하는 도리깨 마당놀이는 이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모험 레포츠의 고장, 인제



래프팅

래프팅은 여럿이 함께 고무로 만든 배를 타고 강의 급류나 파도를 타는 레저스포츠입니다. 인제의 내린천은 우리나라 최고의 래프팅 명소로 꼽힙니다



인제스피디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테마파크이자 용인스피드웨이, 태백레이싱파크,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이은 네 번째 공인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아이언웨이

용대리 매바위(높이 100m)에 설치된 암벽등반코스입니다. 전문적인 암벽등반 기술이 없어도 30분 정도의 교육으로 쉽게 암벽을 등반할 수 있는 모험 레포츠코스입니다.



아르고
(수륙양용자동차)

인제 아르고는 오프로드에서도 주행은 물론 수륙양용으로서 수심에 상관없이 완전 부상하여 주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차입니다.



카약

에스키모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한 노 젓는 소형 배로 대개 1인승, 또는 2인승으로 여름철 바다 사냥에 사용하는 배입니다.

서킷 - 경주용 코스

오프로드 - 특수화된 차량으로 포장되지 않는 길을 달림

수륙양용차 - 물 위와 땅 위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



7

인제의
문화시설



관공서

인제교육지원청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번길 15 (033-460-1000)	학생들의 교육활동 등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청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033-461-2122)	인제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해주고 시설 등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회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7번길 8 (033-461-1463)	고장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 입법, 조례 제정과 폐지 등의 일을 합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경찰서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09번길 9 (182)	인제군 일대의 범죄 감시 및 교통업무, 질서유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소방서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71 (033-461-2119)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하고, 교통사고, 각종 재난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우체국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번길 10 (033-461-2008)	지역 내의 편지나 소포 관리 및 은행 업무, 보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보건소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033-461-242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질병예방, 진료, 전염병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주민센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05번길 9 (033-460-2311)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하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선거관리위원회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번길 27 (033-463-2374)	선거,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인제교육도서관 193번길 15-1
 (033-460-1077)

인제군 북면 금강로
 원통도서관 62 원통종합복지타운
 (033-461-008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기린도서관 기린로42번길 11
 (033-462-2087)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도서관 천도리 585-5
 (033-462-4620)

마을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책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동영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유튜브 <우리 고장의 문제해결> 편 시청하기: youtube.com/channel/UCwVSi776DyIPEvFZBsNA0Fg

교과서 속 인제

인제의 관공서를 견학해보고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3-1.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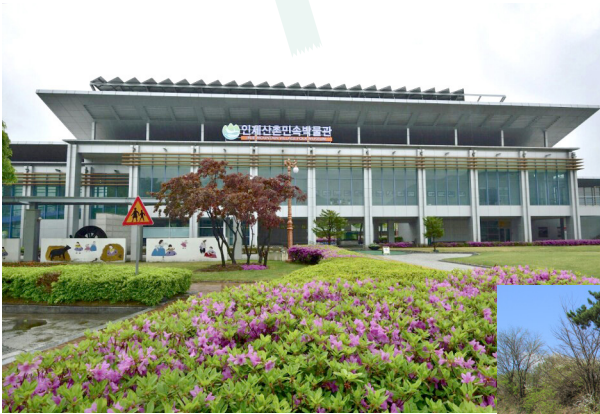
우리 지역의 관공서가 모여 있는 인제의 중심지를 찾아 그곳의 특징을 이야기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1-2. 우리 지역의 중심지)



박물관

1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주소 매년 5월말에서 6월 초 (음력단오)

전화번호 033-462-2086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은 인제읍 상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사라져 가는 산골마을의 풍습과 농가의 풍습 등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유일의 산촌민속 전문 박물관입니다.

전시, 교육 등 박물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연, 영화 상영 등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산촌(山村)을 주제로 특별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2 한국시집박물관



주소 북면 만해로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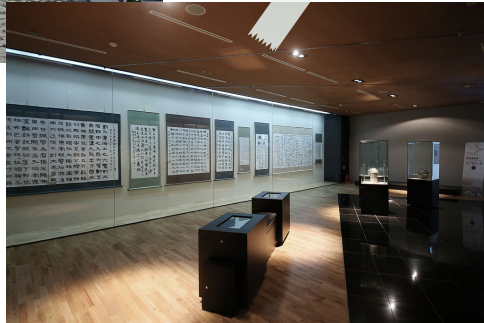
전화번호 033-463-4082

한국시집박물관은 근현대 시인의 시집과 자료 등 1970년대 이전 한국시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인들과 소장가들이 기증한 기증 시집 10,000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전에 간행된 희귀 시집 100여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과 각종 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체험공간, 안내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3 여초서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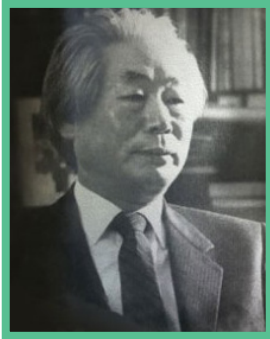


주소 북면 만해로 154

전화번호 033-461-4081

여초서예관은 여초 김응현 선생의 문화재급 서예작품과, 서적 등 총 6천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초 선생의 서예작품을 통해 '서'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변화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기법의 디지털 전시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재미있는 붓글씨 체험도 가능합니다.

인제의 인물이야기



여초 김응현
(1927 ~ 2007)



1927년에 태어났으며 호는 여초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서예와 한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숙명여대, 홍익대, 성균관대 등에서 한학과 문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1996년부터는 설악산 백담사 부근으로 거처를 옮겨 글씨 수련에 전념했습니다. 2003년, 김응현은 가로 6m, 세로 5.3m에 이르는 필생의 역작 광개토대왕비문을 완성했습니다.

2006년에는 광화문 현판 교체론이 떠오를 당시 현역 서예가 중 1순위에 오를 정도로 근현대 한국서예사의 최고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친형인 일중 김충현과 함께 근현대 서예사의 4대가로 알려집니다, 그의 글씨는 원숙미와 독창성이 돋보이며 서체가 활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속 인제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여초 김응현' 선생님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2-2.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박물관

4 내설악예술인촌공공미술관



주소 북면 예술인촌길 66-12

전화번호 033-463-4081

내설악예술인촌공공미술관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립미술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교류전을 열고 있습니다. 동시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여 인제군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소외된 지역 학생들, 귀농인들에게 예술과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설악예술인촌공공미술관은 상설전시 없이 기획전시, 초대전시, 대여전시, 대관전시 등 다양한 종류의 전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박물관

5 박인환문학관



주소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산촌민속박물관

전화번호 033-462-2086

박인환문학관은 시인 박인환을 기억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시인의 **연대** **기나 유작, 유품**을 전시해 놓은 다른 문학관과는 달리 박인환과 관련된 역사적 **명소**를 마치 드라마 세트처럼 현장감 있게 재현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박인환이 글을 쓰던 시절의 공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박인환문학관 주위에는 '시인 박인환의 거리'를 조성해 시와 조형물을 감상하며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연대기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적은 기록

유작 -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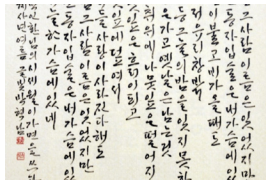
유품 -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물건

명소 - 널리 알려진 곳

인제의 인물이야기



박인환
(1926 ~ 1956)



['세월이 가면']

시인 박인환은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의 강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46년 시인으로 등단했고, 광복을 맞으며 종로3가에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열었습니다. 서점을 하면서 문단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후 활발한 문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47년, 경향신문의 기자와 종군기자로 활약을 하다가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 시 81편, 소설 6편, 산문 72편 등 총 173편의 작품을 남겨 한국 현대시와 문학사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인환은 1956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 내용은 동영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유튜브 <박인환문학관> 편 시청하기: youtube.com/channel/UCwVSi776DyIPevFZBsNAOfg

교과서 속 인제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박인환' 선생님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2-2.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박물관

6 만해마을



주소 강원 인제군 북면 만해로 91 만해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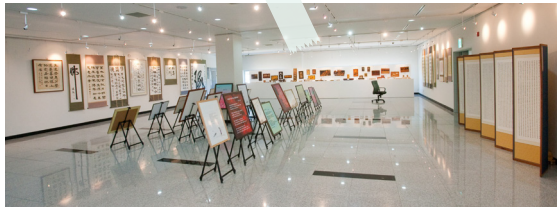
전화번호 033-462-2303

만해마을은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수련장입니다. 이 마을은 내설악의 넉넉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만해문학박물관을 시작으로 문화, 교육, 휴식 등의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1 인제하늘내린센터



주소 강원 인제군 인제읍비봉로44번길 100 하늘내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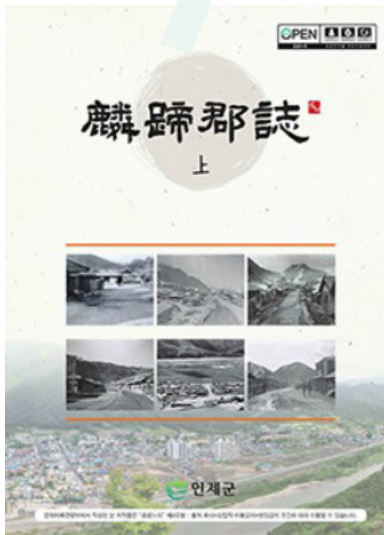
전화번호 033-460-8900

인제하늘내린센터는 지역 내 문화생활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내부 시설로는 공연장과 전시실로 구성된 미소채, 스포츠센터인 누리채, 문화사무복지공간인 나래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1 인제문화원



[인제의 역사, 산업, 문화를 정리한 문화원 간행물 '인제군지']



[합강문화제 퍼레이드]

주소 인제읍 비봉로44번길100

전화번호 033-461-6678

인제문화원은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문화학교 강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강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들을 주최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인제읍청소년문화의집, 남면청소년문화의집,
기린면청소년문화의집, 북면청소년문화의집



[인제읍청소년문화의집]



[북면청소년문화의집의
체험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독서, 댄스실, 노래방, 밴드실을 제공하며 제빵 실습, 바리스타 실습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





자연이 주는 선물 인제



1

인제의 산



설악산 (1708m)

주소 : 북면 한계리, 용대리 일대

설악이라는 이름은 주봉인 대청봉이 1년 중 5~6개월 동안 눈에 덮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남한에서는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1년 중 평균기온이 10° C를 넘지 못하는 저온 지대에 속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 걸쳐 있는 산이지만 전체 반 이상이 인제군에 속해 있습니다.

1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

(명승 제99호로 지정)

2 용아장성

(명승 제102호)

3 공룡능선

(명승 제103호)

4 내설악 만경대

(명승 제104호)

- 1부 인제 보물 파트 참조 -



[봉정암 일대의 설악산]

대암산 (1304m)

주소 : 서화면·북면 일대

대암산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북면과 양구군 동면·해안면에 걸쳐서 위치한 산입니다. 대암산이란 해발고도가 이 지방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큰 바위가 많은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 시인은 '봉우리마다 다른 바위 모습, 곳곳이 다 같은 가을 기운'이라고 대암산을 묘사했습니다. 대암산의 자연조건은 희귀식물의 성장에 적합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훌륭한 천연기념물 보호 지구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대암산 전경]



[대암산 정상]

방태산 (1435m)

주소 : 기린면 방동리

방태산은 인제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이루는 산입니다. 사방이 긴 능선과 깊은 골짜기를 뺀고 한국에서 가장 큰 자연림이라고 할 정도로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산의 모양이 주걱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억봉'이라고도 불립니다. 산 아래 남쪽으로는 개인약수가 흐르고 북쪽으로는 방동약수가 흐르고 있어 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방태산 전경]



[주억봉 정상]

점봉산 (1426m)

주소 : 기린면 진동리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 보고 있으며 점봉산 이라고도 불립니다. 남설악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점봉산 일대에 펼쳐진 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시림에 가까운 곳입니다. 점봉산은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20%에 해당하는 8백54종의 꽃과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어 천상의 화원으로 불립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점봉산 전경]



[점봉산 고산습지]

원시림 - 사람의 손이 가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산림

한석산 (1,119m)

주소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중심에 위치한 산으로 설악산 한계령에서 가리산을 지나 내린천 쪽으로 향하는 능선 끝에 있습니다. 한석산 자락에는 가리산리, 하추리, 고사리, 덕산리, 덕적리 마을이 있습니다. 한석산은 인제읍을 지키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6.25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는데 한석산 전투를 승리하면서 인제읍을 수복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상에는 '한석산 점령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석산 전경]



[한석산 점령 기념비]





2

인제의 하천



내린천

주소 : 홍천군 내면 광원리 ~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은 홍천군 내면에서 기린면을 지나는 소양강의 지류입니다. 이름은 내면의 '내'자와 기린면의 '린'자를 따서 내린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인 내린천은 그 길이가 무려 70km에 이르는 긴 물줄기입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특이한 지형을 가진 항아리 모양의 구멍, **포트홀**을 볼 수 있습니다. 내린천은 물살이 강하고 굴곡이 심해 래프팅의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린천]



[내린천 포트홀]

포트홀 - 하천의 바닥이 비, 바람, 강물 등에 의해 표면이 깎여 생긴 원통형의 깊은 구멍

인북천 · 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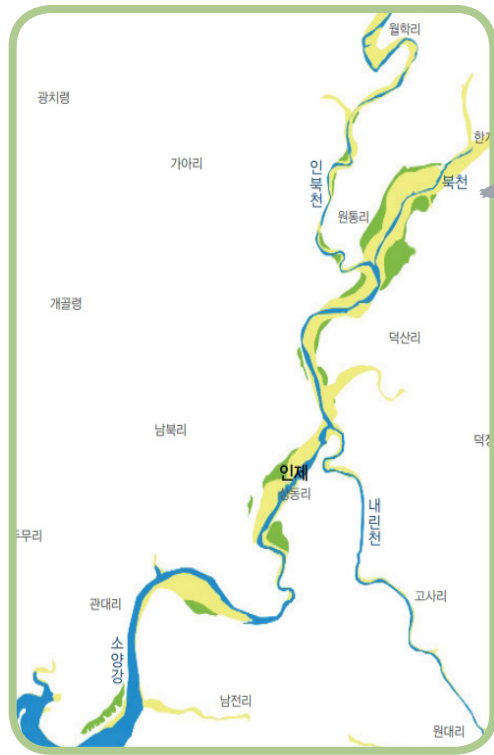
주소 : 서화면 서화리 ~ 인제읍 소양강 합류점

인북천은 북한지역 무산에서 발원하여 내린천과 합류하는 인제 합강까지를 말합니다. 인제군 북쪽에서 흘러온다 하여 '인북천'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북천은 미시령에서 발원하여 용대, 한계를 지나 원통에서 인북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를 말합니다. 인북천·북천 일대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각종 민물고기, 물새, 수달피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북천]



[인제의 하천]



3

인제8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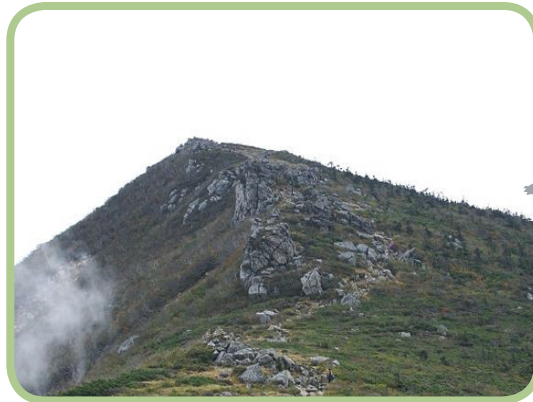
인제 8경

인제군에서 지정한 가장 아름다운 8곳으로 제1경 대청봉, 제2경 대암산용늪, 제 3경 대승폭포, 제 4경 십이선녀탕 계곡, 제 5경 내린천계곡, 제 6경 방동약수, 제 7경 백담사, 제 8경 합강정이 있습니다.

1 대청봉

주소 : 북면 용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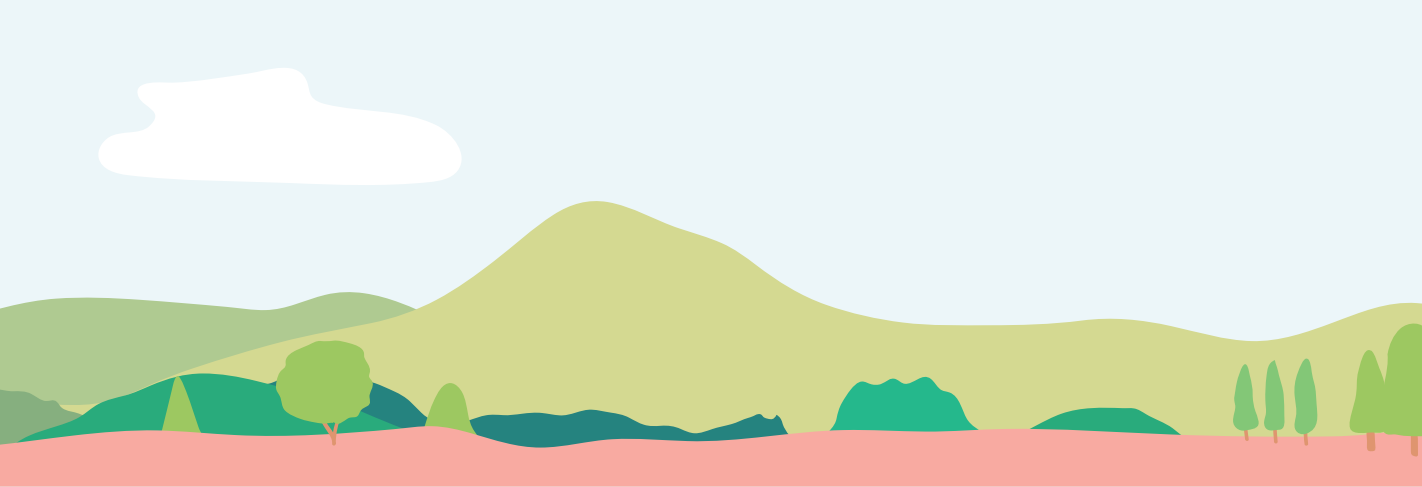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으로서 예전에는 청봉(靑峯) 또는 봉정(鳳頂)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대청봉은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고, 남한에서는 한라산 백록담, 지리산 천왕봉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은 일출과 일몰로 유명하며 기상 변화가 심합니다. 또한 몸이 밀릴 정도의 강한 바람, 낮은 온도 때문에 누운잣나무 군락이 자라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대청봉은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눈으로 덮여 있고, 6~7월이면 진달래·철쭉·벚꽃으로 뒤덮여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대청봉]



[대청봉 표지석]



2 대암산용늪

주소 : 서화면 서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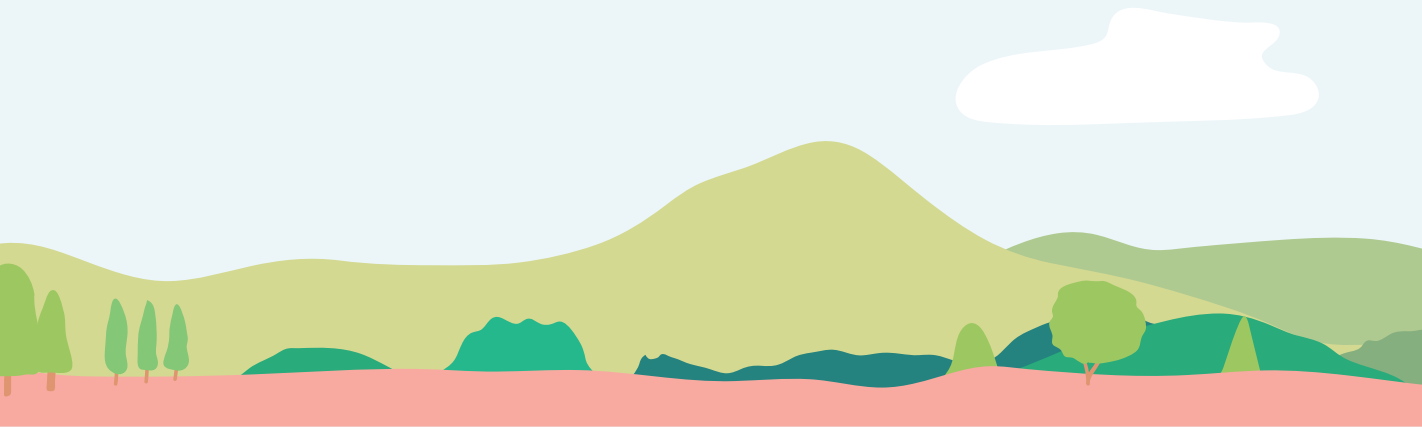
대암산용늪은 대암산에 5200여 년 전에 형성된 습지입니다. 남한에서 유일하게 산 정상에 형성된 고층습원으로 국내 람사르 조약의 습지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늪이 만들어진 결정적 이유는 너무 추워 죽은 식물이 채 썩지 않고 쌓인 이탄층 때문입니다. 평균 1m, 최대 1.8m에 이르는 용늪 이탄층은 수천 년에 이르는 식물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중요한 연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용늪에는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데 산양과 삵, 하늘다람쥐 같은 멸종 위기 동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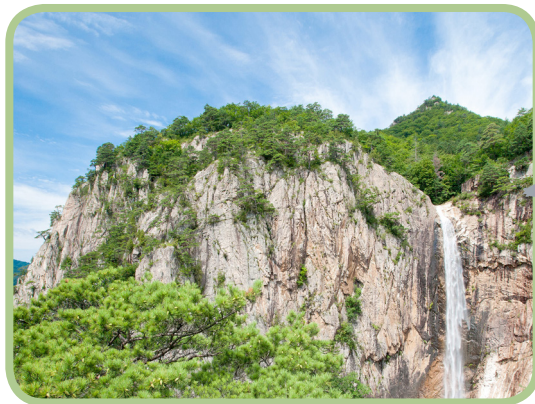
[용늪습지]



3 대승폭포

주소 : 북면 한계리

- 1부 인제 보물 파트 참조-



[대승폭포]

4 십이선녀탕 계곡

주소 : 북면 용대리

- 1부 인제 보물 파트 참조-



[십이선녀탕의 복숭아탕]

5 내린천

주소 : 홍천군 내면 광원리
~ 인제군 기린면

‘하늘이 내린 가장 아름다운 **비경**의 계곡’
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계곡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모래밭, 자갈밭 위로 맑은 물이 흐릅니다. 피라미, 깍지, 갈겨니, 동자개, 통가리, 메기, 누치, 미꾸라지, 어름치, 열목어 등이 서식하고 있어 물놀이와 함께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곳곳에 유원지, 쉼터, 간이주차장 등이 있어 가족단위 야영객들도 많이 찾는 계곡입니다.

비경 -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내린천 계곡의 자랑 '래프팅']



[내린천 계곡]

6 방동약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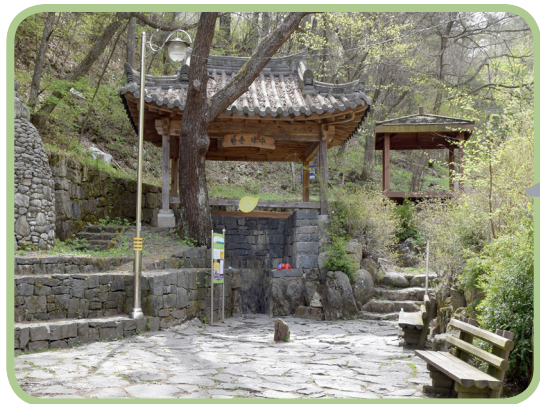
주소 : 기린면 방동리

방동약수는 '한국의 명수'로 지정할 만큼 효능이 있는 신비의 물입니다.

이 약수는 탄산성분이 많아서 설탕만 넣으면 사이다 맛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철, 망간, 불소가 들어 있어서 위장병에 특효가 있고 소화증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어떤 심마니가 이곳 방동리에서 앞이 여섯 개 난 산삼, 육구만달(60년 된 산삼)을 캐다고 합니다. 이 산삼을 캐낸 자리에서 약수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방동약수가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강릉의 한 처녀가 병에든 어머니를 위해 이곳을 찾아와 약수를 떠다 드려서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방동 약수터]

7 백담사

주소 : 북면 용대리

백담사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절입니다. 신라시대에 자장율사라는 인물이 세웠는데 처음은 '한계사'라 불렸으나 그 후,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가 백 개 있어 '백담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담사는 십여 차례 사라졌었다가 1957년에 다시 세워져 현재에 이르는 등 역사적 **우여곡절**이 많은 절입니다.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이 도를 닦고 민족독립 운동을 펼쳤던 유적지로도 유명합니다.

우여곡절 - 뒤얽혀 복잡해진 사정



[영시암]



[백담사 전경]



[백담사의 극락보전과 3층석탑]

인제의 전설 이야기 ^{전설}

용대리 백담사



이 사찰은 지금의 화천 땅에 비금사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포수들이 짐승을 잡으러 자주 몰리는 탓에 북면 한계리에 절을 옮기고 한계사라고 칭했습니다.

한계리의 온 이 절은 다섯 차례나 화재를 만났는데, 화재를 만날 때마다 주지 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절터를 옮기고 이름을 고쳐보라고 말했습니다. 곧장 용대리 양자동에 옮겨 영취사라고 이름을 고치기도 하였으나 이곳에서도 화재를 만났습니다. 그러던 하룻밤, 주지스님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대청봉에서 절까지 담수를 세어 보아라”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스님은 그 이튿날, 대청봉에서부터 절 자리까지의 물굽이를 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는 꼭 일백 개였습니다. 주지스님은 절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우고 이름을 백담사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절에 화재가 전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동영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유튜브 <백담사 이야기> 편 시청하기: youtube.com/channel/UCwWSi776DylPevFZBsNAOf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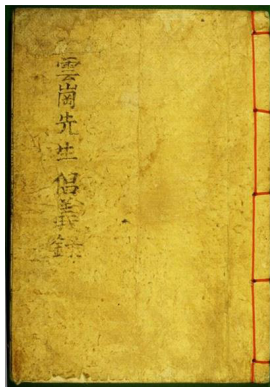
교과서 속 인제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를 조사해 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1학기 2-1.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인제의 인물이야기 ^{두산}



의병장 이강년
(1858 ~ 1908)



[창의일록]

이강년 의병장은 경북에서 의병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원도와 충북 일대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지방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리에 밝은 이점을 이용해 **신출귀몰**한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제 백담사의 전투는 의병사에 빛나는 승리로 남아 있습니다. 산악전에 능한 이강년 의병장은 좁은 골목에 군사를 배치하고 기습하여 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중 공격을 받은 5백 명의 일본군은 크게 패하여 후퇴했지만 의병대는 끝까지 쫓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강년 의병장은 1908년 7월 2일 청풍 작성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붙잡혀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게 됩니다.

이강년의 <창의일록> 중 인제 백담사 전투에 대한 기록

“12일… 적이 많이 들어오므로 쳐서 무너뜨렸다. … 이튿날 새벽에 파수병이 3번이나 급한 정세를 보고하기를 적 500여 명이 북쪽에서 온다고 했다. **군중**이 모두 나가 좌우로 **독려**하여 **반** **날**을 **격전**하니 적이 크게 무너지므로 추격하여 무찔렀는데 적의 죽은 자가 수백여 명이며 우리 군사의 사상자도 수십여 명이 었다. 이날 간성(杆城) 신흥사(神興寺)로 옮겨 **주둔**하고 군사들을 **교련**시켰다. 다음날 다시 오세암(五歲庵)으로 옮겨 주둔하였다.”

신출귀몰 -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지는 모습

군중 - 군대의 안

독려 - 감동하며 격려함

반날 - 하루낮의 반

격전 - 격렬한 싸움

주둔 -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는 일

교 - 가르쳐 단련시킴

교과서 속 인제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여초 김응현' 선생님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초등사회 4학년 1학기 2-2.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인제의 전설 이야기

오세암



오세암은 설악산 백담사에 있는 암자입니다. 다섯 살 된 아이가 폭설 속에서 부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오세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속 인제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를 조사해 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1학기 2-1.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오세암 전설 이야기

한 스님이 부모 잃은 어린 조카를 암자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스님이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아이만 암자에 남겨둔 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스님이 양식을 구해 암자로 가려고 했으나 폭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눈이 녹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른 봄, 눈이 녹기 시작하자 서둘러 암자로 올라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스님이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자 어머니(법당 안의 관음보살)가 매일 양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 소리와 함께 나타난 백의 선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경전을 주고 파란 백조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5세에 득도하였다고 하여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8 합강정

주소 : 인제읍 합강리

정자 앞으로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는 합강이 흐른다고 하여 합강정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합강정은 인제에서 가장 일찍 지어진 누각형 정자 건물로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내린천과 인북천의 풍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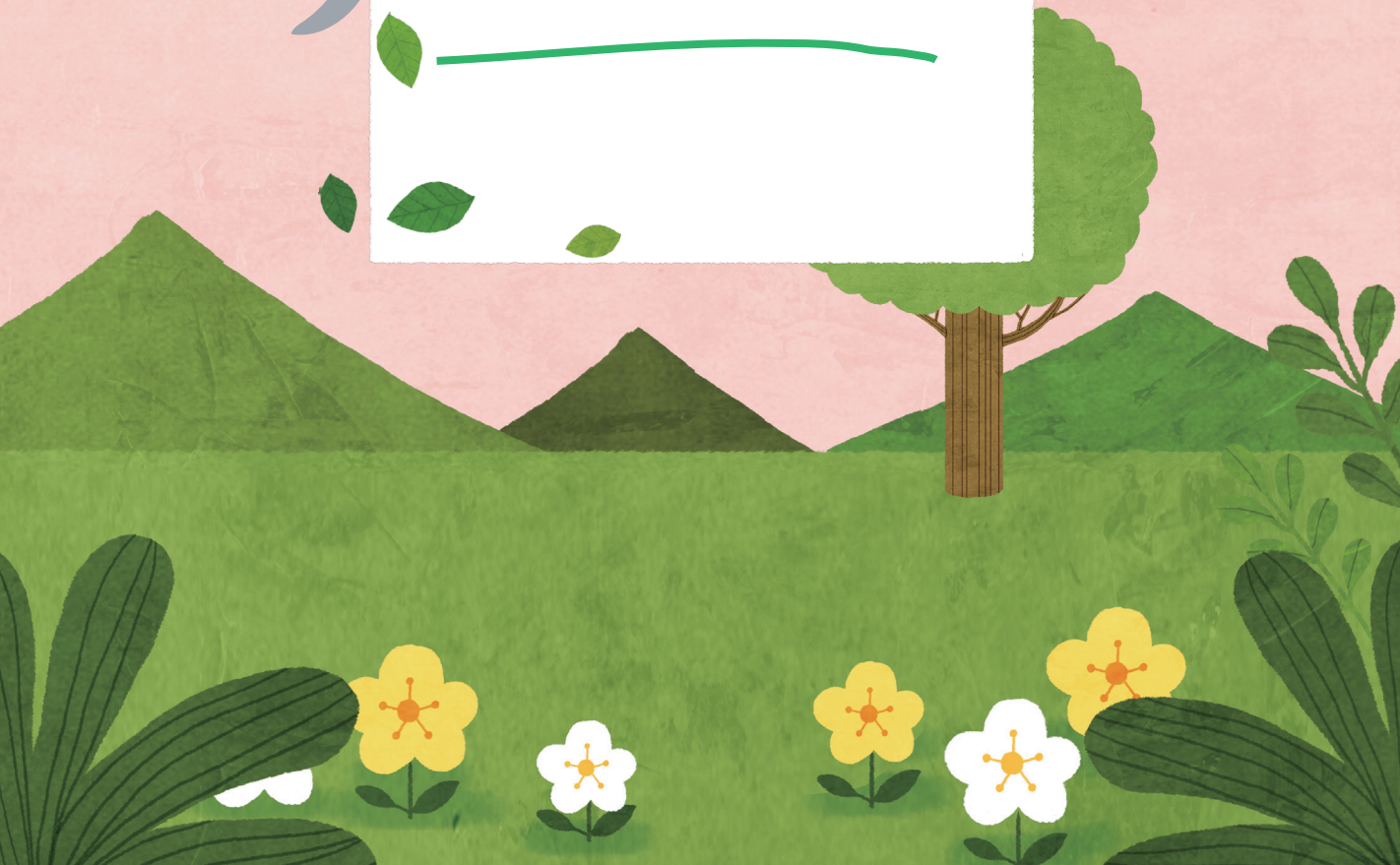


[합강정]



4

인제의 관광명소



곰배령

주소 : 기린면 진동리

곰배령은 곰이 배를 하늘로 향하고 벌떡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점봉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에 자리한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야생화 천국입니다. 점봉산 전체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이라 입산이 금지되지만, 강선계곡부터 곰배령까지 약 5km에 생태 탐방 구간이 만들어져 아름다운 야생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림을 보호하기 위해 곰배령은 1일 탐방인원을 3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곰배령]



[곰배령 산행로]

자작나무숲

주소 : 인제읍 원대리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숲입니다. 자작나무 목재는 아주 단단하고 세밀하고 결이 고와서 가구와 조각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림의 재료가 자작나무껍질이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도 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원래 소나무 숲이었는데,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해 소나무를 베어내고 펄프 생산 목적으로 자작나무 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자작나무 숲은 690,000본을 관리하고 있고, 그중 일부를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림욕 - 병 치료나 건강을 위하여 숲에서 산책하거나 온몸을 드러내고 숲 기운을 쐬는 일

천마총 -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 시기의 무덤

솔잎혹파리 - 소나무 해충



[자작나무숲]



[자작나무숲의 가을]

아침가리계곡

주소 : 기린면 진동리

땅도 좁은 데다 골짜기도 깊어서 아침나절에만 햇볕이 들어오고, 그때만 발을 갈 수 있다 해서 아침가리라고 부른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아침가리계곡은 옛날 정감록에서 "난을 피해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라 지칭된 곳으로 지금도 깊숙한 산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전쟁 때도 이곳만큼은 군인들의 발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계곡을 따라 펼쳐진 원시림은 우리나라의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경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가리계곡]

필레약수

주소 : 인제읍 귀둔리

필레란 이름은 난리를 '피해'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라는 뜻으로 '피래'라고 부르다 바뀌었다는 설과 주변 지형이 베를 짜는 여인(=필녀匹女)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런 명칭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약수는 1930년쯤에 발견된 탄산약수로 설악산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는 이들만 찾는 약수터였다가 피부병과 위장병에 좋다는 소문이 돌아 먼 지역에서도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약수는 숙취에도 좋으며, 약한 탄산수로 철분이 있어 비린 맛이 납니다.



[필레약수]

마장터와 새이령

마장터는 인제군 용대리에서 고성군 도원리로 가는 옛길에 있습니다. 인제군의 농산물과 동해안의 수산물에 오가는 길목에 수십 가구가 살던 마을인데 말을 사고팔던 곳이라 해서 마장터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마장터로 가는 고개 새이령은 한자로 간령(間嶺)으로 표기하고, 작은새이령은 소간령, 큰새이령은 대간령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진부령, 미시령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발길이 적어지고 화전민 정리 사업으로 마장터 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길과 숲길을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장터]



[새이령의 성황당터]



약수숲길

약수숲길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인제군, 홍천군, 양양군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인 탄산약수(방동약수, 개인약수, 삼봉약수, 갈천약수, 오색약수, 필레약수)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홍천 삼둔, 인제 사가리)을 연결하여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제지역의 약수숲길은 방동약수와 개인약수를 잇는 50km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이용하던 오솔길을 발굴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었던 농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약수숲길 전경]

평화누리길

세계 유일 분단지역의 상징성을 가진 평화누리길은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총 551km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평화누리길은 강화에서 고성까지 10개 시군에 조성되고 있으며, 자연, 생태, 역사, 문화, 안보 등 시군별 차별화된 테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평화누리길은 서화면 서화리(양구 경계)부터 북면 용대리 미시령 정상(고성 경계)까지 약 64.5km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화에서 원통까지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인북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걸을 수 있으며 원통에서 미시령 정상까지는 내설악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걷는 평화누리길 걷기여행, 자전거로 DMZ를 질주하는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분단의 아픔을 느끼며 달리는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사진 공모전,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특화된 행사로 접경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제 누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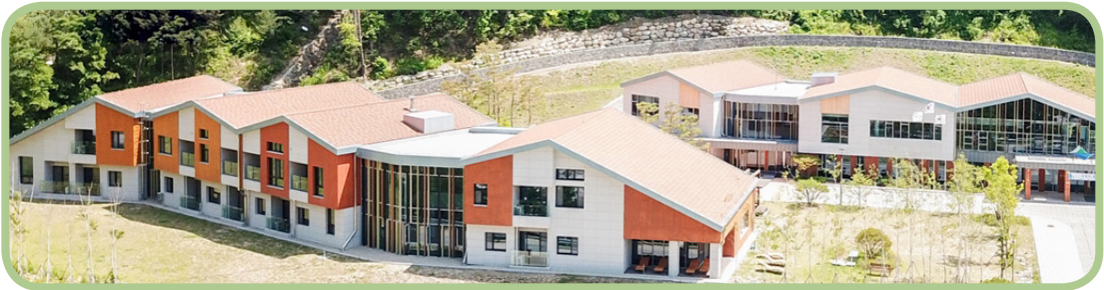
설악산생태탐방원

주소 : 북면 한계리

생태탐방원은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국립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생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생태체험 종합시설입니다. 설악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전체가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설악산권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생태탐방 프로그램]



[설악산생태탐방원]



본 내용은 동영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유튜브 <인제의 생태이야기> 편 시청하기 : youtube.com/channel/UCwWSi776DylPevFZBsNA0Fg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주소 : 서화면 서화리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DMZ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보전하고 그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에 개관한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DMZ 전시관과 교육관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현재(2019. 10)까지 학생, 주민, 군인, 외국인 등 1,729회 57,506명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DMZ역사 전시관]



[대암산 용늪 람사르 습지 생태체험 교육]

멸종위기우제류종복원센터

주소 : 북면 용대리

멸종위기우제류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종 증식과 복원, 구조와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짝수의 발급을 가진 포유류 동물인 우제류 중 산양이 이곳에서 보존 중입니다. 멸종위기우제류종복원센터는 야생동물의 서식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제류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우제류종복원센터]

교과서 속 인제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해 봅시다.
(초등사회 3학년 1학기 1-2. 하늘에서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



5

인제의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식물상, 동물상, 지질학적 또는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곳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존 관리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 지역을 말합니다.

보호지역명	지정면적	지정연월	지정주체	비고
설악산국립공원	398km ²	1970. 3. 24 국내 5번째 지정	환경부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73km ²	1965. 11. 5	문화재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59km ²	1980. 1월	산림청	점봉산, 방태산, 설악산, 용늪, 산머리곡산 등 다수
천연기념물 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16.49km ²	1973. 7. 13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247호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3.91km ²	1973. 7. 13	문화재청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1.36km ²	1999. 8. 9	환경부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지역	276.31km ²	2005. 9. 9	환경부, 산림청	삼재령 - 갈전곡봉 87.3km
대암산 용늪 람사르 습지	1.36km ²	1997. 3. 28 국내 1호 지정	람사르협약	
유네스코 설악산생물권 보전지역	767.5km ²	1982. 8 국내 1호 지정 2016. 3 확대지정	유네스코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인제군 339.41km ²	2019. 6. 19	유네스코	전체(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1,828.15km ²

인제 내고장바로알기

발행일 초판1쇄 인쇄 2020년 2월 24일
초판1쇄 발행 2019년 2월 26일

발행처 인제교육지원청
인제군청

주소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전화 인제교육지원청 033) 460-1000
인제군청 033) 461-2122

집필진 이윤희(인제교육지원청)
전지호(인제교육지원청)
허경덕(인제교육지원청)
김유진(인제교육지원청)
박유미(인제교육지원청)
임혜숙(인제군청)
박혜숙(인제군청)
서승아(인제군청)
최민정(서화초등학교)
최상우(부평초등학교)
길상현(인제초등학교)
손승완(한계초등학교)
박수홍(RCE센터)
황호섭(DMZ평화생명동산)
디블루협동조합

영상팀 디블루협동조합